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e-book으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항의문화촌, 조선동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태이션, 총대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영취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뜨따뜨가운영센터,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3 E-mail. aktw5555@bscf.or.kr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2 Autumn 2016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2 Autumn 2016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4.7707 F. 051.744.7708~9
www.bscf.or.kr

Islands of the Mind

《Islands of the Mind》는 작가의 고향인 부산의 바다 풍경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사연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인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초현실적인 섬의 풍경들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관객들에게도 자신의 내면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인상을 전하고자 하였다.



Night Walk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130cmx164cm



Islands of the Mind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97cmx776cm



Islands of the Mind



River Landscape,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130cmx164cm

임현정 작가

- MA Fine Art,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 (영국 세인트마틴스 예술대학 순수미술 석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마음의 섬들' (연오재, 2016/OCI 미술관, 2016) 및 다수 전시회 참여
- 2016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 작가
- 2016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지원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 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회원 혜택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후원회원 종류

- 일반회원 : 매월 1만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만~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회원 가입방법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c.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문의 사항

- 경영지원팀 051-745-7216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2 Autumn 2016

CONTENTS

004

여는 글 정민정

012

문화 돋보기 I

부산의 자매도시를 찾아가다²⁾



014

사막에서 피어난 중동 문화의 중심 두바이 김태진

020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삶을 꿈꾸는 오클랜드 박지선

028

세계 공연예술의 변방도시,
그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 케이프타운 장광열

034

새롭고 젊은 도시의 다이내믹한 변신 티후아나 헤라르도 고메스 미첼
Gerardo Gómez Michel

044

말문을 열다

046

부산 미술계의 원로작가 강선보와의 만남 양순주

054

부산의 해양문화를 말하다 정원조

058

올댓 부산, 사진가 문진우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부산은 없다 이광수



062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역할 함수경

066

문화 돋보기 II

068

부산연극, 그 성장과 전망 김문홍

072

부산의 연극 김성배 김영희 이혁우 정경환

078

눈을 맞추다

독자와의 교류



086

손을 잡다

어둠 속의 대화, 마음을 열다 오숙희

090

속살을 보다

092

[시각예술] 2016 부산비엔날레 ... : 그 속에 사람이 있다 송만용



096

[창작발간] 독립출판을 바라봄, 바라봄 강은경

102

[예술기획] 문화가 있는 날, 두 가지 변수와 두 개의 가능성 정상도

106

[영화] 영도(影島)를 소재로 한 두 편의 부산 다큐멘터리 김이석



110

부산문화재단은 지금

부산문화재단 「공감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개간지 「공감 그리고」는 국·내외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통권 22호 정기간행물(부산광역시바01159) 등록일 2011.6.23 발행일 2016.11.10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주간 정봉석 편집위원 구분호, 김종균, 김희진, 동길산, 정민정, 정봉석
편집기획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디자인·제작 한글그라픽스 Tel. 051-632-7842

공감 그리고,

글 정민정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센터 팀장, 본지 편집위원)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갔다. 가을의 한 가운데에서도 무덥게 느껴지던 낮의 기온도 이제야 물러간 듯하다. 조금은 낯설게까지 느껴졌던 지난 여름의 열기는 언제나 그랬듯 어느새 시원한 바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옷깃을 여미는 차가운 바람이 되어 곳곳을 스며든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여름의 기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기운으로 모든 감각이 재배열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잊고 있었던 감정이나 무언가 처음 시작하면서 품었던 각오와 의지가 날카롭게 되살아나기도 한다.

문화비평지로 창간된 '공감 그리고'가 독자들과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새롭게 변모한 뒤 7번째 인사를 건넨다. 새롭게 기획방향을 설정한 뒤 열심히 달려왔던 뜨거운 열기를 잠시 식히며, 그간 혹시 잊고 있었거나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것들을 되살펴보는 시간이 '공감 그리고'에도 필요했는지 모른다.

이번 호의 기획코너에서는 부산의 연극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하고, 다양한 비평, 아카이빙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와 더불어 독특한 잠재력을 가진 부산의 연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들어본다. 특히 "연극은 삶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극은 기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인간에 대한 진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김문홍 선생님의 말씀은 연극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나아가 수없이 많은 비인간적이고 비문화적인 상황과 마주하는 일상과 현실 속에서 목적을 잃은 채 무작정 달려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매호마다 4개의 자매도시를 찾아가는 긴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티후아나, 오클랜드, 웨스턴케이프주, 두바이로 떠난다. 평소에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기에 각 도시를 경험한 필자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속살을 보다'에서는 지난 여름 처음으로 개최된 '2016 부산아트북페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부산의 독립출판계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들어본다. 또한 부산시립미술관과 고려제강의 공장을 활용한 F1963에서 개최되고 있는 부산비엔날레에 대한 해석과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적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영도를 배경으로 한 부산 감독들의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의 의미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시행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다.

이 외에도 부산의 문화를 다른 지역의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산문화 바라보기와 부산의 원로예술인과 신진예술인 간의 만남,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진 예술가를 소개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문을 열다' 코너도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또한 지난 9월 초순 개최된 '배리어프리영화제'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매번 새로운 잡지가 나올 때마다 뿌듯한 마음도 들지만 그만큼 고민도 쌓여간다. 참여해주신 필자분들과 잡지를 기다려주신 독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가을호에서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처음의 마음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020 page

오를랜드 아트페스티벌
The Chorus: Oedipus





092 page

2016 부산비엔날레
〈손에서 손 끝으로〉

부산의 자매도시를 찾아가다 ⑦



26
자매도시

- 가오슝 19호
- 블라디보스톡 20호
- 호치민 17호
- 이스탄불 17호
- 프놈펜 21호
- 양곤 21호
- 바르셀로나 16호
- 빅토리아 17호
- 웨스턴케이프주 22호
- 시카고 16호
- 카사블랑카 16호
- 로스엔젤레스 18호
- 상하이 17호
- 오를랜드 22호
- 두바이 22호
- 뭄바이 19호
- 시모노세키 20호
- 수라바야 19호
- 발파라이소 20호
- 후쿠오카 18호
- 데살로니키 20호
- 리우데자네이루 18호
- 티후아나 22호
- 몬트리올 19호
- 산트페테르부르크 18호
- 세부 21호

7
우호협력도시

- 선전
- 텐진
- 충칭
- 오사카 16호
- 방콕 21호
- 나가사키
- 베이징

부산은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글로벌 도시다.
부산과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고있는 해외 자매도시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도시들의 문화계 모습은 어떠할까. 지난호에 이어 살펴보자.

- Dubai
두바이
- Auckland
오를랜드
- Cape Town
웨스턴케이프주(케이프타운)
- Tijuana
티후아나

사막에서 피어난 중동 문화의 중심 두바이

글·사진 김태진
kimylee art gallery 대표, eazel 공동설립자

조금 오래전 유행하던 코미디 프로그램에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보며 위쪽은 공기부터 다르다며 놀려먹던 장면이 있었다. 초고층(超高層), 크고 높은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그 탄생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질긴 것이어서 현재도 그 정도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은 듯하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마천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기록을 갈아치우며 높이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그럴 때마다 빠짐없이 언급되는 곳이 바로 두바이이다. 그래서일까? 우리에게 두바이는 세계 최고, 최초, 최대 등 '무적'의 수식어로 다가오는 도시이다.



두바이 Dubai



사막의 작은 무역도시, '중동의 홍콩'이 되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의 아버지도 낙타를 탔지만, 난 벤츠를 타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그의 아들도 랜드로버를 탈 것이다. 하지만 내 증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게 될 것이다.” 이는 현 두바이의 국왕이자 아랍 에미리트의 부통령의 부친인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막툼(1912-1990) sheikh rashid bin saeed al maktoum이 했던 말이다.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에미리트 연합국 중의 하나인 두바이는 약 4,114km²와 인구 250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1966년까지만 해도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의 작은 무역도시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오일의 발견과 함께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타 중동의 나라와는 다르게 셰이크 라시드는 오일에 의지한 국가 발전은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두바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아부다비는 약 100년 정도 후 자원 고갈이 예측된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항만과 공항을 만들고 경제 및 무역 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다. 그 후 50년, 두바이는 '중동의 홍콩'이라 불리는 금융·경제·무역·관광의 중심지가 되었다.



두바이(아랍에미리트) Dubai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의 수도이며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이다. 두바이의 경제는 석유 산업으로부터 발전했지만, 현재는 관광, 항공, 부동산, 금융 서비스 등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더 월드, 팜 아일랜드 같은 인공섬과 초고층 호텔,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세계 최고층 빌딩부르즈 할리파가 있다. 두바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주 선정되고 있다.

반이슬람적 개방정책이 밀거름된 예술산업

오일 붐 이후 초기 두바이의 문화예술관련 기반은 국가 지원이나 정책에 의한 성장이 아닌 시장경제와 주변 정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어렵지 않은 비자 발급과 사업허가 그리고 세금이 없다는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주메이라 Jumeira 지역과 두바이 국제무역센터 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같이 과거 부촌 혹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라 갤러리 opera gallery, 그린아트 갤러리 Green art gallery, 쇼케이스 갤러리 showcase gallery 등의 갤러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또한 두바이는 이슬람을 국가의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국가이나 국가 정책의 특성상 아랍권에서 타문화에 가장 개방된 나라이기도 하다. 아마 해변에서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을 수 있고 술에 취한 관광객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아랍국가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이유 덕분에 많은 예술가가 두바이로 이동하였는데, 특히 문화적으로 폐쇄적인 인접 아랍국가(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예술가들에게는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기도 했다. 갤러리들과 다양한 문화지형의 예술가들의 유입과 더불어 과거 아랍권 문화의 중심지(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카이로)들의 정세적 혼란과 불안은 두바이가 새로운 문화적요충지로 자리 잡는데 일조하였다. 그 예로 두바이에 자리 잡은 다수 이란계 갤러리 및 컬렉터들의 이동을 들 수 있다. 두바이의 가장 오래된 갤러리 중의 하나인 써드라인 The Third Line의 대표인 서니 라흐바르 Sunny Rahbar는 이란계 부모를 둔 두바이 태생이며 두바이의 컬렉티자 후원자인 파르하드 파르잠 Farhad Farjam과 라민 살사리 Remin Salsali 또한 이란 출신의 사업가들이다. 파르잠 컬렉션 The Farjam Collection은 DIFC에 위치한 비영



1964년 두바이



현재 두바이



시카아트페어



두바이 아트시즌

리 개인 미술관으로 이슬람 근·현대 개인소장품을 전시하고, 살사리 프라이빗 뮤지엄은 *Salsali Private Museum* 최초로 2011년 오픈한 두바이 내의 개인미술관으로 수십 년 간 수집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한 무료 기획 전시를 제공한다.

50년의 짧은 역사로 이룬 중동문화의 허브

한층 다져진 토대 위에 두바이가 더 빠르게 중동 문화의 요충지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두바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몫 했다. 2007년 당시 경제 공황에 처했던 두바이는 세계 금융 무역의 중심지에서 문화관광산업을 통해 재도약을 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화 기반을 성을 위해 두바이 정부에서는 2008년에 정부산하 기관인 두바이 문화예술기관 *The Dubai Culture and Arts Authority* 을 신설

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현 아랍 에미리트의 부통령, 수상이자 두바이의 국왕)이 설립한 이 기관은 두바이 전략적 계획 (Dubai Strategic Plan 2015)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후원과 기반 시설을 마련해왔다. 2016년 완공된 두바이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두바이의 건립 역사를 조명할 에티하드 미술관 *etihad museum*, 중동 및 GCC 작가들의 후원 및 전시, 레지던스 기회를 주는 타쉬킬 파운데이션 *tashkeel foundation*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들과 다양한 예술지원과 행사들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일들을 병행해나갔다.

두바이 아트시즌 *Dubai Art Season*이라는 명칭 아래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 기간에는 아트 두바이 *Art Dubai*, 글로벌 아트포럼 *Global Art Forum*, 시카 아트페어 *Sikka Art fair*, 다

운타운 디자인 두바이 *Downtown Design Dubai*, 알서칼애비뉴 갤러리 나이트 *Alserkal Avenue Gallery night*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두바이 전역에서 벌어진다. 두바이 아트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시카 아트페어는 두바이의 가장 오래된 사적지 알 파히디 *Al Fahidi*에서 벌어지는 행사로 GCC지역에 거주하는 작가들을 집중 조명한다. 이 기간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로 아트 두바이는 매년 3월에 개최된다. 마디나트 जु메이라 *Madinat Jumeira*에서 열리는 이 국제 아트페어는 약 90개의 다양한 갤러리들이 참여하는데 세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템포러리 섹션, 중동 근대 작가들을 조명하는 근대 섹션 그리고 매년 특정한 테마나 지역을 포커스한 마커 섹션으로 이루어진다. 페어 기간 중 아브라즈 그룹 미술상 *Abraaj Group Art Prize*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수상자의 전시가 함께 열린다.

아트 시즌 전체가 아닌 아트 두바이가 벌어지는 한주간만 행사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2015년 25,000명으로 집계됐고 이 기간에 미화 약 3,500만 불의 추가적인 경제 이득을 가져왔다고 한다. 모래뿐인 사막에 풀 한 포기 나지 않던 두바이가 연간 1,4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받는 중동 문화의 허브 그리고 관광도시가 되기까지 불과 50년이 걸렸다. 그 거침없는 행보와 발전이 앞으로의 두바이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다.



아트 두바이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삶을 꿈꾸는 오클랜드

글·사진 박지선
독립 프로듀서, 프로듀서그룹 모토

한국에서 11시간을 살짝 넘는 시간을 날아가면 뉴질랜드 북섬에 자리 잡은 오클랜드에 닿는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듯 위엄과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자연경관, 대지를 발로 구르고 주먹 친 손으로 온몸을 치며 크게 아우성치는 원시적이면서도 절도 넘치는 마오리족의 춤, 검게 그을린 피부에 화려한 꽃무늬 프린트가 가득한 원피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는 태평양 사람들 등 뉴질랜드를 떠올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식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다.

오uckland Auckland



‘공존’, 다문화 도시를 지탱하는 삶의 철학

뉴질랜드 사람들은 모든 공식행사의 언어를 마오리어로 시작한다. 이는 뉴질랜드에서만 아니라 국제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초청받은 연사는 늘 마오리 언어로 연설의 포문을 연다.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고개를 갸웃하고, 이들의 문화를 모르는 행사 주최자라면 순간 당황하기 일쑤이다. 뉴질랜드에는 정치적 변혁 시기인 70, 80년대 마오리족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잃어버린 언어를 찾기 위해 평화운동을 했던 역사가 있다. 그 결과 마오리족들은 언어와 함께 그들의 문화를 지키며 뉴질랜드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영어, 마오리어, 뉴질랜드 사인 언어가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이다. 이들의 삶의 철학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공존’ 일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다 문화 간의 서로 다른 삶의 공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 공존의 삶!

오uckland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이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구성이 55%, 아시아 인구는 23%가 넘어서고 있다. 태평양 지역 인구가 14%, 마오리 11%이며 소수 민족 그룹과 인구는 빠



오uckland(뉴질랜드) Auckland

1840년 윌리엄 홉슨(William Hobson) 총독이 오uckland를 식민 정부의 수도로 정하고 영국 초대 해군장관과 인도 총독을 지낸 오uckland 백작(Earl of Auckland)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1851년 자치구가 되었고, 1865년 웰링턴시로 대체되기 전까지 뉴질랜드의 수도였다.



2016 Auckland Arts Festival (photo by Gate Photography)

1. Fire Garden at Auckland Domain

2. The Chorus: Oedipus



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까지는 아시아 인구는 27%, 태평양 지역인구는 17%, 마오리 1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40%에 달하는 오uckland의 이민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오uckland 내 사용 언어의 수가 175개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40만 명이 안 되는 인구 속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오uckland의 문화예술도 공존을 중심에 두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들이 어떻게 존중되고 통합되며 오uckland만의 독특한 색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도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술적 자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드러내고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과 일상의 통합

오uckland 위원회(Auckland Council)는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높이고, 오uckland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술과 문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오uckland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이 일상의 삶으로 통합되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Toi Whitiaki’는 2010년부터 오uckland 위원회에서 5년간의 연구 조사를 통해 만들어 낸 문화예술 전략 액션 플랜(Arts and Culture Strategic Action Plan)이다. 액션 플랜에는 여섯 개의 키워드와 각각의 목적이 드러나 있다. 첫째는 참가(Participation)이다. 모든 오uckland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의 기

회를 갖고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장하고, 정보 전달의 소통 창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문화예술로의 접근과 참가에 문제가 되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투자(Investment)로, 오uckland의 가치를 평가하고 문화예술의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로, 문화 예술 조직과 시설의 생동감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uckland를 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다. 네 번째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이다. 이들은 오uckland의 다양하고 독특한 다문화적 요소가 오uckland의 고유한 장소성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며, 공공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오uckland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다섯째는 정체성(Identity)으로, 마오리 문화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기념하면서 오uckland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이다. 오uckland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뉴질랜드 타 지역과 비교에 매우 높은 편으로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49%가 오uckland에 몰려있다. 현재 900여 개의 영역에서 18,000여 명이 고용되어 있다. 오uckland위원회는 크리에이티브 산업 관련 교육을 확장하고, 전문가들 간의 협업을 통한 오uckland의 경제 향상을 액션 플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오uckland위원회의 문화예술 전략 액션

플랜은 2010년 동안 5년 간의 리서치를 통해 만들어 낸 핵심 계획들이며, 2015년부터 위의 여섯 개의 핵심 키워드와 목표를 다른 문화예술기관과 공유하고 오클랜드를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오클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 행사인 오클랜드 아트페스티벌(Auckland Arts Festival)의 비전과 프로그램 또한 위의 액션 플랜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매년 3월 뜨거운 여름에 열리는 오클랜드 아트 페스티벌은 2003년 오클랜드 시의회에 의해 다시 부활된 후 올 3월 8번째 축제를 마쳤다. 오클랜드 아트페스티벌은 연극, 무용, 서커스, 재즈, 클래식 음악, 록밴드, 시각예술 등 전 예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예술축제로, 대표적인 국제 예술축제를 지향하며, 예술을 통해 오클랜드의 사회, 문화, 경제적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축제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16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 동안 열린 축제에는 41개국에서 해외 아티스트 200여 명을 포함해 1,16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했다.



Auckland Arts Festival(사진 www.aucklandfestival.co.nz)

다양한 문화의 경험과 예술적 지평을 넓혀주는 축제

65억이라는 축제의 예산만 보더라도 축제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올해까지 축제 예술감독을 맡은 칼라 반 존(Carla Van Zon)은 축제의 핵심 주제를 문화적 다양성(Diversity)에 두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한다고 한다. 175개의 언어

가 사용되고 아시아와 소수 민족의 인구가 48%에 달하는 환경에서 그녀는 늘 자신의 관객을 꼼꼼히 살피며 그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듯하다. 예술축제의 역할에 대해서 예술감독은 “축제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퍼

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며, 동시에 모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관객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때로는 기존의 아트센터가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감한 선택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의 아트센터에서는 마오리, 남태평양 지역의 작품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실험적이고 난해한 작품에 대해서도 쉽게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축제야말로 관객들에게 늘 익숙한 것들이 아닌 새로운 작품들을 소개함으로 그들의 예술적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함을 축제의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는 것이다.

축제는 올해 4편의 세계 초연과 15편의 뉴질랜드 초연 공연을 올렸으며, 올해 프로그램에는 특히 한국 작품으로 LG아트센터 제작 음악극 <더 코러스 : 오이디푸스>와 전통 음악 단체인 노름마치의 작품을 초청해 한국의 예술작품과 오클랜드 관객들 사이의 다리 역할

을 했다. 칼라 반 존(Carla Van Zon)이 한국을 찾을 때 마다 늘 오클랜드의 한국 이민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축제의 관객으로 초대하는 동시에 작품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축제에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료행사가 많다. 2016년에도 약 200여 편의 무료 행사에 93,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역시 'White Night' 으로 오클랜드 페스티벌에서 가장 늦은 밤까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월 12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열렸다. 오클랜드 뮤지엄, 아트 갤러리, 뉴질랜드 해양박물관, 시 도서관 등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기관, 광장, 공원 등 100여 곳의 장소와 연계한 하룻밤 갤러리 프로그램으로 공연, 음악, 전시, 영화, 디지털 아트 등 300명 이상의 아티





스트들과 25,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참가하였다. 무료로 운영되는 White Night 버스에 올라타면 자정까지 갤러리 순회를 하며,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가족의 날 프로그램도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무료행사인데, 시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아오테아광장 AOTEASQUARE에 가족 중심의 워크숍과 공연들이 펼쳐진다. 아오테아광장은 축제 기간에는 축제 클럽으로 탈바꿈된다. 자유롭게 놓인 빈백들과 테이블과 의자들, 작은 무대, 임시카페와 바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편에는 스피겔 텐트 Spiegel Tent가 세워져 밤에는 재즈, 록 등 음악 공연이 이어진다. 올해는 오uckland의 대표적인 컨템퍼러리 미술 작가들이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보는 가운데, 축제광장에서 페인팅 작업을 하며, 시민들과 예술적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축제의 행정감독 데이비드 인스 David Innes는 축제 중 페스티벌 클럽이야말로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에서 비용을 들여 평소 공연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아오테아광장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하는 축제의 정신이 담겨있는 장소인 것이다.

뉴질랜드의 문화도시 오uckland, 협력의 손을 뻗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하는 오uckland 아트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Duck, Death and the Tulip>, <Te Po> 두 작품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 설명을 제공했으며, <Te Po>, <Not in our Neighbourhood> 두 작품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무대 위 사인언어를 제공했으며, 축제의 모든 공연장의 80%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작년 오uckland 공연장에서 끝까지 비어있던 제일 앞줄에 마지막으로 안내견과 함께 입장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공존의 삶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오uckland 사람들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 인간과 동물의 공존, 다문화 간의 공존의 삶 속에 이제 일상과 예술의 공존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밖의 세상에도 협력의 손을 뻗는다. 그들의 아시아와의 적극적인 협력의 손짓은 2015년부터이다. 뉴질랜드의 문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오uckland에 본부를 두고 있는 크



리에이티브 뉴질랜드는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주요 국가로 설정하고, 뉴질랜드 아티스트들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제작, 국제 행사 참가 등 다양한 협력을 지원한다. 또한 아시아와 뉴질랜드 아티스트, 단체, 프로듀서, 큐레이터 등의 장기적인 협력지원을 하는 Asia New Zealand Art-form Exchange와 3개월간 레지던시를 지원하는 Artist Residencies, 뉴질랜드 아티스트와 아시아 포커스 6개국 아티스트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2017년 7월 내 프리젠틱되는 프로젝트 지원) Asia New Zealand Co-commissioning Fund도 있다. 이 중 Artist Residencies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예술

가들의 아시아 내 레지던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예술가들의 뉴질랜드 내 레지던시도 포함하고 있으며, 아시아 뉴질랜드 파운데이션 Asia New Zealand Foundation에서 지원한다.

조금은 낮은 여름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uckland의 3월도 좋을 듯하다. 2년마다 열리는 오uckland 아트 페스티벌이 이제는 매해 열리고 있다. 2017년은 3월 8일부터 26일이다.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삶을 꿈꾸는 오uckland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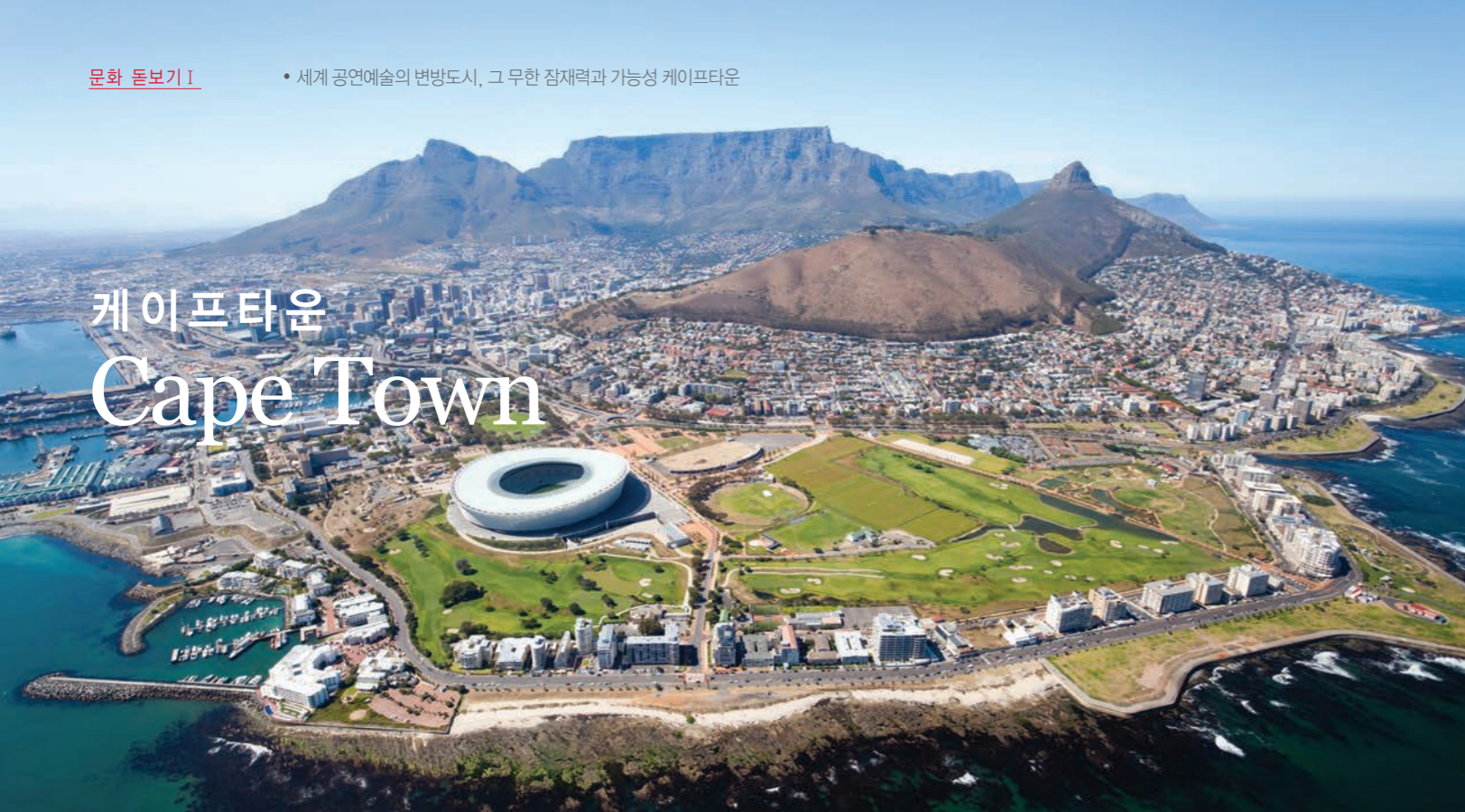
세계 공연예술의 변방도시, 그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 케이프타운

글·사진 장광열

무용평론가,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대표,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

공연예술 부문에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아직은 변방이다. 세계 공연예술 시장에서 아프리카의 춤과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연예술 시장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향후 아프리카는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그 성장 가능성이 적지 않은 곳이다.





케이프타운 Cape Town

무용으로 발돋움하는 아프리카 문화의 희망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도인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은 마치 유럽을 연상할 만큼 도시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치안도 안전한 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이블 마운틴과 희망봉이 가까운 곳에 있는 웨스턴케이프주의 케이프타운 Cape Town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내가 이 두 도시를 방문한 것은 2년 전 발레 축제와 국제 발레 콩쿠르 취재를 위해서였다.

케이프타운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남아프리카 국제 발레 콩쿠르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가 열린다. 올해로 이 콩쿠르는 7회째를 맞았으며, 이 콩쿠르 개최로 케이프타운은 무용을 통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조금씩 쌓아 가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 발레 콩쿠르는 단순히 댄서들의 기량을 겨루는 경연 대회 이상의 그 무엇을 갖고 있다. 단순한 경연이 아닌 교류를 전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래밍은 도시나 국가의 홍보수단 혹은 전략적인 문화정책의 하나로 활용된다. 예선이나 준결승 탈



웨스턴케이프주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Cape Town

케이프타운 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웨스턴케이프주에 있는 행정구로 케이프타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 수도이며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의 주요 거점이었다. 석유 정제, 화학제품과 비료 생산, 시멘트 생산, 자동차 조립이 주된 산업이다. 가장 중요한 산업이 선박 수리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선거가 있다.

락자들에게 오히려 유능한 발레 교사들의 클래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처럼 유난히 교육적인 기능을 강화해 다른 콩쿠르와 차별화하기도 하고, 유스 아메리카 뉴욕 발레 콩쿠르처럼 700여 명의 댄서가 경연에 참여하는 매머드 콩쿠르로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

제6회 SAIBC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은 아프리카와 미국,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온 68명의 댄서가 참가해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케이프타운의 Artscape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2014 콩쿠르에는 중국과 한국, 쿠바의 댄서들이 대거 입상했다. 중국은 금·은·동을 합쳐 모두 6개의 메달을, 한국은 4개 그리고 쿠바는 각각 2개의 메달을 땀다. 2016년 올해 제7회 SAIBC는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콩쿠르가 시작되었고, 5일 동안에 걸쳐 남아프리카, 미국, 쿠바, 한국, 라트비아, 러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참가자들이 경연을 벌였다. 올해 참가 인원은 다른 국제 발레 콩쿠르의 평균 참가자 숫자보다 다소

적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작년보다 남아공 입국 시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확인 절차와 공증제도가 강화되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남아공에 도착했는데 공증서류가 없어 돌아간 팀이 몇몇 있었고, 서류절차가 까다로워진 것도 콩쿠르의 참가인원 감소를 가져온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발레 발전의 동력이 되다

케이프타운의 남아프리카 국제 발레 콩쿠르는 Scholar(dancers aged 12 to 15 years), Junior (16 to 20 years), Senior (21 to 26 years)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시상은 주니어와 시니어, 클래식 발레와 컨템포러리 발레 그리고 남녀 무용수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총상금은 370,000 랜드(약 4천만 원). 무대 리허설까지 친다면 아주 힘든 일정의 콩쿠르임이 분명하다. 콩쿠르의 기간이 비교적 긴만큼 참가자들에게는 체력 관리를 포함해 하루하루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아주 섬세한 콩쿠르였다. 참가자들은 비록 힘은 들겠

남아프리카 국제발레콩쿠르



지만 계속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입상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춤 기량 향상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국제 발레 콩쿠르는 Dirk Badenhorst가 2008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부 수도인 케이프타운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2014년에도 콩쿠르 참가자들의 수준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올해 2016년 콩쿠르는 심사위원들의 면면이나 참가자들의 기량 등에서 예년에 비해 더욱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전해진다. 남아프리카 국제 발레 콩쿠르는 국제 콩쿠르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발레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Youth 발레단들의 공연을 함께 편성,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 발레 댄서들을 통한 국제교류를 실현하겠다는 주최 측의 야심찬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

2014년에는 케이프타운에서의 콩쿠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수상자들의 갈라 공연을 편성하고 이후에는 요하네스버그로 장소를 옮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발레 공연을 편성했다.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2회 공연과 림포포에서 한 차례 공연이 이어졌다. 이 같은 시도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문화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4년과 2016년 우리나라의 청소년 발레 전공생들로 이루어진 코리아 유스 발레단이 케이프타운에 이어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

부산국제무용제 초청 CAPE DANCE COMPANY

를 비롯한 두 도시에서 쿠바와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청소년 발레 무용수들과 함께 공연을 펼친 것처럼 남아프리카의 주요 도시를 연계한 청소년들의 정례적인 연합공연은 발레 예술을 통한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 되고 있다.

케이프타운 공연예술의 메카, ARTscape

케이프타운을 대표하는 공연장은 ARTscape이다. 우리나라의 예술의전당과 같은 곳으로 CIVIC CENTER와 맞닿아 있다. 남아프리카 발레 콩쿠르와 수상자들의 공연 역시 이 공연장에서 열렸다. 음악, 연극, 무용 공연이 주로 열리는 복합 공연장의 성격을 띤 이곳은 케이프타운 공연예술의 메카이기도 하다.

케이프타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두 개의 무용 단체가 부산국제무용제에 초청되어 내한공연을 갖기도 했다. 케이프타운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인 Cape Dance Company는 2014년 부산국제무용제에 초청되어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Convivencia>와 <When Dawn Comes> 두 작품을 공연했다. 라벨의 음악 '볼레로'에 맞춰 10명의 무용수들이 군무와 현대발레 작품을 선보인 이 단체는 당시 아프리카 무용수들 특유의 유연성이 정통 발레 테크닉과 다채로운 현대무용 테크닉과 접목된 작품으로 주목을 끌었다. 또 다른 단체인 Spanish Dance Theatre는 스페인의 정통 플라멩코와 컨템포러리 플라멩코 모두를 공연하는 단체로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등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공연할



남아프리카 국립미술관

등을 펼친다. 오랜 경험을 가진 두 명의 댄서들이 두 개의 컨템포러리 탱고 작품을 공연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아프리카 한 중심에서 세상의 문화를 만나다

세계 5대 관광지로 꼽히는 케이프타운은 입법부의 수도이자 요하네스버그에 이은 대도시답게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건축물과 박물관 등 근대적인 건축물과 19세기 건축물을 개조한 현대적인 건물들이 공존해 있다.

컴퍼니 가든에는 남아프리카 문화사 박물관인 Slave Lodge와 남아프리카 박물관 SA Museum, 국립미술관 SA National Gallery, 세인트 조지 성당 St. George Cathedral 등이 위치해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남아프리카 문화사 박물관 1층에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시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도자기와 가구 유리 제품과 17~19세기 케이프타운에서 사용되었던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2층에는 도자기와 은제품, 무기, 드레스, 완구, 악기 등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남아프리카 박물관은 1825년에 문을 연 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이다. 바위에 그려진 2만년 전 그림과 코이 신족(무시맨)의 주거 모형, 도구 장식품, Kydenburg Heads라 불리는 10세기 무렵 진흙을 구워 만든 마스크, 300만년 전의 화석과 길이 20미터의 고래 골격 등이 주요 전시물이며, 남아프리카의 생물과 박제 그리고 광물 등도 전시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남아프리카 국립 미술관에는 남아프리카와 인근 여러 나라를 비롯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회화와 조각 작품, 18세기의 인물 초상화부터 아방가르드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 케이프타운에는 또한 이곳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의 생활, 역사 등을 전시한 보카프 박물관 Bo-Kapp Museum, 미술관인 미하엘리스 아트 컬렉션 Michaels Art Collection, 유대 박물관 Jewish Museum, 18세기 부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저택인 코프만스 다 웨트 하우스 Koopmans Wet House 등 이색적인 미술관과 박물관도 있다. 보카프(말레이) 박물관은 오래된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 중요 문화재로 보호되는 말레이 사람들의 거주 구역에 있다. 18세기에 지은 박물관으로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이다. 19세기의 전형적인 말레이계 이슬람교도의 생활이나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마차나 짐차 등도 전시하고 있다. 유대 박물관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시나고그 Synagogue, (유대교 사원)을 박물관으로 만든 것으로 유대교 역사와 의식 상 중요한 물건들이 보존되어 있다.



ARTscape 공연장



새롭고 젊은 도시의 다이내믹한 변신 티후아나

글·사진 헤라르도 고메스 미첼
Gerardo Gómez Michel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번역 손현정(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학 박사과정)

티후아나가 국경지대라는 지정학적 사정으로 사람들과 물자가 드나드는 교류의 거점이 되었듯이, 부산 또한 바다를 낀 항구도시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교류의 거점이 되었다는 점은 두 도시의 큰 공통점이다. 부산시의 구호가 '다이내믹 부산'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티후아나 또한 지난 25년 간 2배에 가까운 인구성장과 도시화된 모습으로 부산과 같이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면에서 티후아나와 부산은 모두 늘 새롭고, 젊고, 역동적인 도시들이다.



티 후 아 나 Tijuana



신시티에서 역동적 도시로의 다이내믹한 변신

16세기 유럽정복자들이 지금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사제들을 데려와 티후아나에 종교 건물을 짓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1889년 공식적으로 도시로 세워진 티후아나의 역사는 127년이 되는 셈이라, 5세기가 넘는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라, 모렐리아 등 멕시코의 다른 도시들이나 혹은 몇 천년의 서울이나 부산보다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오늘날 멕시코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티후아나는 도시가 건설되고 1920년대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은 미국이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한 금주법인 볼스테드법으로 바뀌게 된다. 산디에고와 국경을 마주한 티후아나는 알코올이 합법이었기에 알코올 소비를 위해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각종 유흥서비스 사업 분야가 번창하게 되었다. 주로 술집, 식당, 카바레, 카지노, 경마장과 매춘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세를 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티후아나는 일탈과 타락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티후아나(멕시코) Tijuana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의 최대 도시이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최북단 도시로 '멕시코의 골목'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골목'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산디에고와 맞닿아 있어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가는 교통의 중심지인 티후아나는 멕시코의 장단점이 혼합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번영과 유흥 산업, 상업의 중심지로 티후아나에 가면 멕시코의 화려한 시장과 문화를 맛보기에 충분하다.



Tijuana Cultural Center

미국의 금주법으로 인해 일었던 붐은 40년대에 와서 사그라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산디에고와 캘리포니아를 통해 티후아나로 왔다. 때문에 유흥분야뿐 아니라 각종 제조품과 서비스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미국과 맞댄 국경으로 워낙 많은 사람이 넘어와, 한때 티후아나는 세상에서 제일 방문객이 많은 국경이라 불리기도 했다. 사람과 물자의 거대한 이동은 70년대 멕시코와 미국 국경사이에서 생겨난 '마킬라도라 산업'으로 인해 급격한 가속도를 받게 된다. 현재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단지에는 현대와 삼성 등 한국회사도 진출해있다. 티후아나가 국경지대라는 지정학적 사정으로 사람들과 물자가 드나드는 교류의 거점이 되었듯이, 부산 또한 바다를 낀 항구도시라는 그 지정학적 이유로 교류의 거점이 되었다는 점은 두 도시의 큰 공통점이다. 부산시의 구호가 '다이내믹 부산'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내가 거의 평생 살았던 티후아나 또한 지난 25년간 2배에 가까운 인구성장률과 도시화율을 보이며 부산과 같이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내외에서 이주민들이 유입되었고, 이 때문에 티후아나는 멕시코 각지에서 모인 이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이런 정황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모인 이들의 다양한 표현과 삶의 양식이 반영되어 티후아나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더욱이 멕시코와 미국의 양자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티후아나의 문화에 미국적 요소가 가미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티후아나 문화센터 프로젝트(Centro Cultural Tijuana, CECUT)-이후 CECUT-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센터에는 극장, 박물관, 전시회, 영화관, 문학축제와 영화축제, 미술 비엔날레 등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이 벌어진다. 1982년에 출범한 이 센터는 당시로는 상당한 미래파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당시 지어진 천체모양을 띤 영화관은 멕시코에서 여전히 유일한 건축양식을 자랑하는 영화관이다. 그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여 그 이름이 시사하듯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이곳은 티후아나 지역의 문화거점일 뿐 아니라 각종 국제적 차원의 많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연장에서는 매우 고전적인 무용가들을 초대하여 공연을 선보이는데 이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볼쇼이무용단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CECUT, 티후아나의 문화거점

도시가 급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자

1) 마킬라도라(Maquiladora)는 일반적으로 북부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수출을 원칙으로 하는 멕시코의 조립 가공업체를 일컫는다. [내이버 지식백과] 마킬라도라 (세계지명사전 중남미편: 인문지명, (주)푸른길)



Tijuana Cultural Center



현대무용 또한 1999년부터 ‘수송 중인 몸 *Cuerpos en Tránsito*’라는 국제무용경연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대회 이름의 ‘수송’이 암시하는 국경선 도시의 역동성이 춤에도 그 춤을 실현하는 몸에서도 감지된다. 이 장소에서 1년 내내 연극, 클래식음악, 대중음악 콘서트나 뮤지컬, 아동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필자에게는 마르셀 마르소라는 프랑스 팬터마임 무용수의 공연을 본 것이 CECUT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CECUT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측면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리골레토, 카르멘 등의 유명한 공연들을 노천 콘서트 형식으로 즐길 수 있다. 대중을 위해 공연을 하는 이들 중 CECUT에서 1990년에 결성한 바하 캘리포니아 오케스트라가 단연 돋보이는데 이들은 공연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어 클래식 악기수업도 실시한다.

CECUT의 또 다른 매력은 갤러리와 전시회관이다. 갤러리는 티후아나의 역사와 관련된 전시품들을 상시 배치해두는 반면 전시회관들은 전시테마를 늘 바꿔가며 운영한다. 회화와 조각의 작품 종류가 달라지거나 고전과 현대작품 등 시기별로 달라지기도 한다. 현대 작품으로는 멀티미디어가 첨가된 설치작품들도 있는

데, 필자가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다. 유럽에서 과거에 종교재판을 할 때 사용하던 고문기계를 전시했던 행사였는데, 그 중 모든 관람객들의 입을 벌여지게 한 것은 철의 처녀 *Dancella de hierro*, 영어로 iron maiden라 불리는 철로 된 고문기계였다. 기계 위에는 철로 제작된 여성의 얼굴이 붙어 있고, 아래는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방에 공간이 그리 남지 않을 만큼의 빈 공간이 길게 늘어진 종모양의 몸통이 있고 앞쪽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안쪽에 뿔려있는 공간에 철로 된 크나 큰 가시들이 박혀 있는데 이는 사람이 들어가면 가슴팍과 등을 뚫고도 남을 만큼 튼튼하고 큰 가시들이다. 이 철의 처녀는 그대로 종교재판 희생자의 관이 된다. CECUT은 이와 더불어 예술영화상영관이 있는데 때문에 상업영화를 찾는 일반대중들 틈에서 색다른 취향을 가진 관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곳에서는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제작된 가장 완성도 높은 영화들 뿐 아니라 매년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제작되는 예술성 높은 최신작들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도시가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멕시코와 같이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멕시코에서 가치 있는 예술이나 문화

활동이라 하면 늘 수도에서만 일어나게 마련이었고,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필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부산에 왔을 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방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모가 큰 행사인 것이 의아했다. 마찬가지로 미래파 스타일의 건축양식을 자랑하는 영화의 전당이나,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제영화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 등이 티후아나의 CECUT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화 활동, 티후아나의 문화운동과 여러 작가와 예술가들의 노고를 생각나게 했다.

티후아나에서는 CECUT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활동의 기회들이 많다. 소극장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 다수는 독립소극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소극장에 가면 지역 연극 작가와 연극배우들이 선보이는 최신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유명가수들이나 밴드들이 공연을 펼치는 대중음악 콘서트장은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과학이나 역사박물관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큰 교육효과를 누리고 있다.

변화와 역동성, 부산과 티후아나를 잇는 축

티후아나는 멕시코 북서쪽의 국경도시이며 해변을 낀 도시이다. 그래서인지 해안도시 부산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내 고향을 생각나게 한다. 티후아나는 태평양 연안이라 바닷물이 매우 차고 해수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해변을 거닐거나, 일광욕을 즐기

거나, 해수욕을 하거나,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누비거나, 낚시를 하는 등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거대하고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인 바다가 곁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티후아나인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티후아나인으로 부산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점들은 솔하게 나열할 수 있다. 멕시코와 한국 두 반도국가들 모두 바다와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데, 티후아나는 멕시코의 북서쪽, 부산은 한국의 동남쪽으로 두 도시 모두 나라의 끝에 위치해 있고 지금까지 언급했듯 둘 다 바다를 끼고 있다. 한편 티후아나는 미국과 닿아있고, 부산은 일본과 마주하고 있어 두 도시 모두 국가 간 역사적 갈등을 몸소 체험해야 했다는 것 또한 공통점이다. 두 도시 모두 변화와 역동성, 즉 다이내믹함과 함께 늘 발전되어 왔다. 이는 두 도시의 사람들에서도 드러난다. 예전에 티후아나인들은 ‘북쪽의 야만인들’이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다. 오늘날도 북쪽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어 말하기보다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어 상스럽다는 얘기를 듣는다. 부산사람들 또한 서울사람들에 비해 무뚝뚝하고 직설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이 싫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북쪽지방 티후아나 사람인 내가 남쪽지방 부산에서 이렇게 고향처럼 잘 지내나 보다.

Domo Imax



Crónica de un tijuansense en Busan

por Gerardo Gómez Michel

Soy un mexicano nacido en Tijuana, una ciudad fronteriza en el extremo noroeste de México que descansa sobre la costa del océano pacífico y tuvo la suerte, luego de pasar dos años en Seúl, de llegar a Busan hace casi cuatro años para trabajar y vivir en esta ciudad que con todas las diferencias que existen, me permite en muchos sentidos sentirme como en Tijuana, mi tierra al otro lado del mar. En esta época de migraciones globales, de personas que pasan de un continente a otro por trabajo, por estudios, por supervivencia e incluso algunos por amor, la adaptación a un nuevo entorno, a una nueva sociedad, a una nueva lengua no siempre es fácil, como no lo es la vida en general, pero siempre hay aspectos, detalles de la vida que uno comienza a construir en una nueva ciudad que se entrelazan con los recuerdos de nuestra ciudad natal, con los sabores y colores que dejamos atrás, con la gente y el paisaje que nos ha sido familiar toda la vida, es decir, con todo aquello que nos da sentido e identidad. A continuación quiero contar un poco sobre Tijuana, su historia, sus características regionales, su gente, su comida, sus bondades y sus conflictos, todo eso que recuerdo y que me hace ser tijuansense, y al mismo tiempo, comentaré de qué manera he podido conectarme con Busan, de qué manera he logrado tejer mi identidad y mi memoria de Tijuana con esta ciudad al otro lado del pacífico que me ha recibido y que yo, de alguna manera, he adoptado como mi segunda ciudad.

Un poco de historia

A pesar de tener una historia más larga si pensamos en las comunidades indígenas, como los kumiai y cucapás, que habitaron la región antes de la llegada de

los europeos, en las misiones que fundaron los religiosos en la zona de California durante la colonia, en las rancherías que hubo luego de la independencia de México, en realidad Tijuana como ciudad es muy joven. Fue fundada oficialmente en 1889, es decir, tiene 127 años de edad, muy poco a comparación de otras urbes del país como la Ciudad de México, Guadalajara, Morelia, entre otras, que fueron fundadas hace 5 siglos o más (ni qué decir de la antigüedad de una ciudad como Busan, seguramente milenaria en la historia de la península coreana). En este sentido, son Tijuana y Busan extremos opuestos, pero veremos más adelante que en muchos otros sentidos no lo son. Pero volviendo un poco al relato de Tijuana hay que mencionar ciertas etapas fundamentales de su historia y lo que esto significó en su desarrollo hasta nuestros días como la quinta ciudad más poblada de todo México. Desde su fundación hasta los años 20, Tijuana creció de manera modesta, sin embargo, un acontecimiento externo provocó que esta situación cambiara creando el primer boom de la ciudad. Me refiero a la implantación de la Ley Volstead en los Estados Unidos de 1920 a 1933, la llamada "ley seca" que prohibía el comercio y consumo de alcohol. Siendo Tijuana frontera de San Diego y muy cercana de Los Ángeles, en el estado de California, poco tiempo pasó para que se estableciera de este lado de la frontera, donde el alcohol era legal, un desarrollo de la industria de los servicios, claro está, principalmente bares, restaurantes, cabarets, casinos, hipódromo e inevitablemente también casas de prostitución. Al mismo tiempo que la ciudad crecía a un ritmo acelerado, igualmente crecía su fama como una de las "sin city" del mundo, lo que se convertiría en la leyenda negra de Tijuana: una ciudad

de vicio y perdición desde la mirada tanto de mexicanos como de estadounidenses. Esta circunstancia propició que cruzaran la frontera para visitar la ciudad multitudes que querían divertirse, beber, apostar en los casinos, y junto a ellos llegaban también grandes personalidades de Hollywood, del deporte, de la música e incluso de la mafia de Estados Unidos, como el célebre Al Capone. Esta etapa marcó a la ciudad y su percepción en México y en el mundo durante muchos años con un matiz negativo

Desarrollo contemporáneo

A pesar de que a partir de la década de los 40 se había extinguido el boom provocado por la ley seca, la ciudad ya nunca dejó de ser un atractivo para los turistas que llegaban de muchas partes del mundo vía San Diego, California. Ofreciendo cada vez más productos y servicios, además de los relacionados con los vicios que se mantuvieron, Tijuana continuaba atrayendo tanta gente que se ha llegado a considerar como la frontera más visitada del mundo por la cantidad de cruces entre los dos países. Actualmente alrededor de 35 millones de personas al año cruzan en ambos sentidos la frontera en la región que abarca San Diego y Tijuana, ¡casi 100,000 personas cada día! Esta tremenda actividad humana y comercial tuvo su gran impulso en la década de los 70 debido al nacimiento y gran desarrollo que tuvo la industria maquiladora en las regiones fronterizas entre México y Estados Unidos, cabe mencionar que de las fábricas maquiladoras en Tijuana hoy día, las plantas que instalaron Hyundai y Samsung son de las más grandes del país. Esta es otra de las características que siempre me hacen pensar en Tijuana y Busan como ciudades paralelas,

ambas le deben su acelerado desarrollo moderno a su ventajosa posición dentro del mapa de la globalización, su cualidad como puertos (Tijuana por tierra y Busan por mar) excepcionales de intercambio de mercancías y servicios, y como consecuencia el paso y algunas veces instalación definitiva de personas de todas partes del mundo. Sé que el lema de Busan es el de ser una ciudad dinámica (Dynamic Busan!) y ese dinamismo yo lo he vivido toda mi vida en Tijuana, una ciudad que en los últimos 25 años duplicó su población y espacio urbano. Un fenómeno que seguramente ha vivido Busan también. En este sentido, tanto Tijuana como Busan son ciudades nuevas, jóvenes y dinámicas. A diferencia de lo que puede pasar en ciudades y pueblos de larga tradición en los que los cambios no suceden muy a menudo, como tijuansense me ha tocado ver una ciudad en constante cambio y transformación, de calles, edificios, barrios que hasta hace poco no existían. Al pasear por Busan, uno puede darse cuenta de que la ciudad también se ha reinventado en las últimas décadas. Por sólo mencionar un ejemplo, al pasar por Centum City la sensación que se tiene es de una ciudad evolucionada. En el caso de Tijuana, el paralelo es lo que se llama la "Zona Río", la parte de la ciudad que fue diseñada para ser la zona moderna de Tijuana y la más dinámica y que en pocos años pasó a ser parte importante de la identidad urbana de la ciudad y de sus habitantes, como sucede en el caso de Busan con el hermoso puente de Gwanghan.

La cultura

Gracias al intenso crecimiento y desarrollo de la ciudad y a la dinámica migratoria nacional (y también un poco

Tijuana

Tijuana

internacional) debidos a la gran oferta de empleos que ofrecía la ciudad provocó que Tijuana se convirtiera en una comunidad de mexicanos de todas las regiones del país. Esta circunstancia, por su parte, enriqueció la vida cultural con visiones artísticas de muy variada expresión que, además, están siempre abonadas con el fenómeno sociocultural que surge de la relación binacional entre México y Estados Unidos. En este contexto es que nace el proyecto del Centro Cultural Tijuana (el CECUT, como se conoce en la ciudad), un complejo cultural que tiene teatro, museo, exposiciones, cine planetario, festivales de literatura y cine, bienales de artes plásticas, entre otras muchas actividades. Fue inaugurado en 1982 con un diseño arquitectónico futurista para su tiempo, con un edificio en forma de esfera (el cine planetario) que sigue siendo único en el país, y desde entonces ha seguido creciendo y se ha convertido en el polo cultural más importante de la región, no sólo de Tijuana, con eventos muy reconocidos a nivel internacional. Hay que pensar que esto no fue fácil en un país tan centralista como México, donde durante tanto tiempo todo lo que valía la pena en arte y cultura pasaba sólo en la capital. Por esta razón, cuando vine a Busan y me enteré de la gran importancia del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de Busan (con su edificio igualmente de diseño futurista) uno de los más importantes de Asia, y saber que esto se construyó aquí con mucho esfuerzo y no en Seúl, me hace pensar en Tijuana y lo que allá ha significado el CECUT y sus actividades, pero también lo mucho que han sido reconocidos en el país y en el mundo el movimiento cultural de la ciudad y la labor de los artistas de Tijuana.

Paisaje y comida

Decía al principio de este artículo que las personas buscamos siempre algún tipo de anclaje para construir nuestra identidad cultural. Creo que uno de los más fuertes lazos identitarios (después de la lengua y la religión) que uno puede tener con su entorno es el del paisaje del lugar donde nacemos, crecemos y vivimos. No por nada llamamos al lugar donde nacemos "mi tierra". Tijuana comparte con Busan la cualidad de ser ciudad costera. El mar como escenario, en mi caso, es una visión que relaciono con la sensación de estar en casa. No importa que uno no pase mucho tiempo en la playa tomando el sol o nadando o paseando en barco o pescando (cosas que, por otra parte, no se practican mucho en Tijuana), pero uno como gente de costa siempre sabe que ahí está el mar, cerca, inmenso como algo bello y peligroso al mismo tiempo, el mar es una presencia constante en los tijuanaenses aunque muy pocas veces realmente vayamos a nuestra playa, quizá porque no es la más bonita de México ni mucho menos, quizá porque el agua del pacífico siempre está muy fría y no es muy agradable a veces meterse a nadar, pero con saber que el mar está ahí, al alcance de la mano nos sentimos contentos. No obstante, en muchos sentidos somos gente de tierra, en una región semiárida de poca vegetación, calor seco y con largas sequías, casi se puede decir que somos gente de desierto. Y creo que sí, que esas son las dos grandes y contradictorias señas de identidad que asumimos, ya no sólo los tijuanaenses sino la gente de todo el estado de Baja California, somos gente de desierto y de mar al mismo tiempo. Podría decir que somos más apegados a la tierra que al mar (en Tijuana no hay puerto ni industria pesquera, eso sucede 100 kilómetros al sur en el internacional puerto de Ense-

nada), quizá de la misma manera que la gente de Busan quizá esté tradicional y culturalmente más ligada a la montaña (como sucede en Corea en general, creo), el mar nunca deja de ser la gran presencia en la vida de sus habitantes y uno de sus signos de identidad.

Pero por otro lado, lo que no puede negarse, aunque no vayamos mucho al mar, es que en ese otro aspecto cultural tan querido de las personas: su comida, el mar y sus riquezas tiene un primerísimo lugar en Tijuana. En este sentido es que como tijuanaense uno se acomoda tan bien al ambiente de Busan, a su gastronomía especializada en pescados y mariscos, la mejor de Corea, que nos hace recordar nuestra cocina, nuestros numerosos restaurantes con sus pescados y mariscos frescos en diversos platillos exquisitos donde tiene un lugar especial un orgullo de la región: la langosta. Para cualquier visitante esta es siempre una de mis recomendaciones: no dejar de visitar Puerto Nuevo, a solo 30 kilómetros al sur de Tijuana bajando por la costa. Este pequeño poblado pesquero ofrece la mejor y recién pescada langosta de México, que pasa de estar viva en los estanques de los restaurantes al plato del cliente, una visión que es tan típica de Busan con gran variedad de especies marinas y no sólo langosta.

Podría mencionar más detalles que me hacen como tijuanaense sentir mucha afinidad con Busan, claro está salvando la distancia de los idiomas. Estas dos ciudades, en los extremos de sus respectivos países, Tijuana en la última esquina de México en el noroeste y Busan en la esquina sureste de Corea, ambas parte

de penínsulas comparten un destino y una identidad ligada mar, por un lado, y por el otro, son fronteras paradigmáticas de sus países, con Estados Unidos y Japón, respectivamente, situación que por otro lado, no ha dejado de tener sus etapas históricas muy conflictivas. En este sentido, no es raro comprobar que han desarrollado una cualidad de reinención y de dinamismo, lo que se refleja en el carácter de su gente. En algún momento los habitantes de la región fuimos llamados "los bárbaros del norte" por la gente de la capital. Todavía hoy día se dice que la gente del norte somos muy "brancos" (salvajes), porque somos muy directos y francos al hablar y al convivir con la gente, no somos tan protocolarios, y cierto, a veces también poco refinados, pero eso nos gusta, nos gusta ser así y con ello nos identificamos. Seguramente eso también sea un motivo por el que como norteño de Tijuana me siento a gusto con los sureños de Busan!

문화예술정보

말문을 열다

046

부산 미술계의 원로작가 강선보와의 만남 양순주

054

부산의 해양문화를 말하다 정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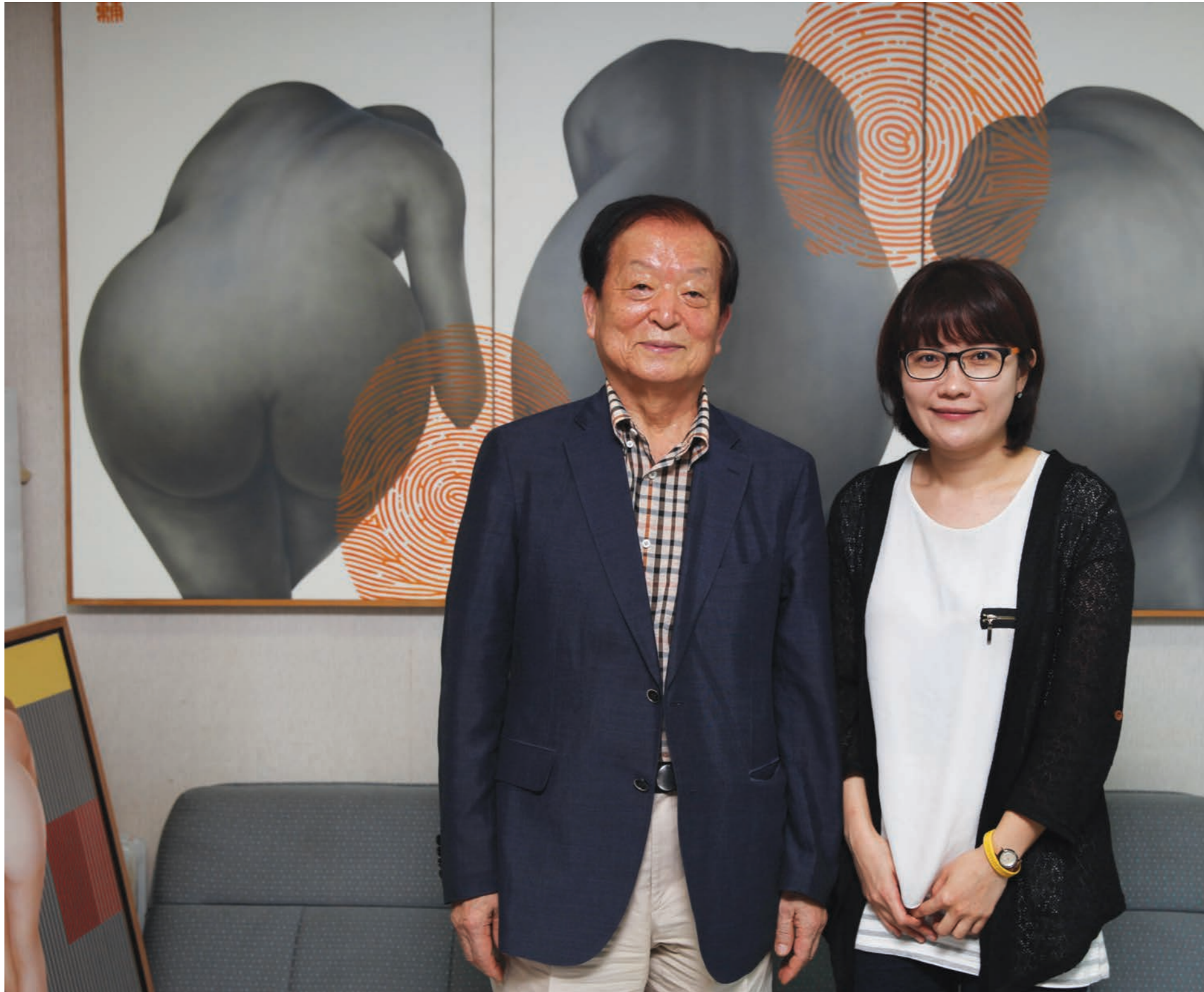
058

올 댓 부산, 사진가 문진우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부산은 없다 이광수

062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역할 함수경





캔버스에 투영된
색감들의 말소리
부산 미술계의
원로작가 강선보와의 만남

글 | 양순주
문학평론가

양순주

“서울 사람들이 미술판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반발로 서울을 제외한 이남의 작가들이 클럽을 만들어 남부현대미술전을 기획했다.”

결국 예술 작품은 가장 미적인 것에 감정을 이입하여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글로 혹은 그림으로 미적 세계를 그려 내는 문학평론가 양순주님과 서양화가 강선보님이 예술에 대한 생각을 씨줄과 날줄로 직조하듯 한편의 텍스트로 엮어냈다.

유년시절, 원형의 기억

양순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강선보 중학교 2학년, 미술 시간에 그렸던 그림이 미공보원에서 특선으로 당선되어 전시가 되었다. 부산사범대 미술과를 다니며 석고 데생이나 하야리아 부대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학비를 벌기도 하였다. 졸업 후 2년간 미술 선생을 하다가 이후로는 기계공고에서 오랜 기간 교장을 하며 기계공업, 공업디자인 관련한 일을 지속했다. 기계공고 근무 중에 혁 미술동인의 멤버가 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풍년을 상징하는 작품을 구상하며 김해 들판에 찾아가 농부들이 눈에 물을 대기 위해 물을 퍼 올리는 건설한 모습을 그리고자 했으나 낙담했다. 배를 타고 낙동강 물금에서 구포다리 쪽으로 내려오던 중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리쬐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 저거다!” 라고 느껴 이를 그리기 시작했다. 기계공고 미술실에서 100호 캔버스에 동그란 원을 그려 우주의 신비, 태양의 신비를 담아냈다. 물감을 짜서 발바닥으로, 나이프로, 붓으로 밀기도 하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질러 부글부글 끓게 하여 햇볕만큼 강렬한 태양/우주의 표면을 표현하고



강선보

자 했다. 이것이 1960년대 말에 동아국제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한 <태양>이라는 작품이다.

강선보는 학창 시절에 풍경, 정물, 인물 등을 그리기도 했으나 <태양> 이후 비구상(非具象)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한다. 2.4m×1.2m 철판에 쇠파이프를 돌리면서 그 속에 온갖 우주의 신비를 담아낸 일종의 반입체적인 작품을 완성해 서울, 일본, 부산 간의 합동전시인 ‘이후(以後) 작가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평면으로 전환하려던 중,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붓 대신 스프레이 작업에 착안하게 된다.

유화 스프레이 작업의 의미

양순주 최근에 그린 작품들은 모두 여성의 뒷모습, 특히 엉덩이를 부각시킨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일관된 이미지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강선보 미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다. 식물, 동물 할 것 없지만 그 중에서도 움직이는 동물이고, 동물 중에서도 인체가 가장 미적인 것이다.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훌륭한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인체 중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엉덩이 선이라고 생각해 이를 지속적으로 그려 왔다.

양순주 그렇다면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미적 세계를 표현해 내는 기교라 할 유화 물감을 스프레이로 분사하는 방식을 소개한다면?

강선보 컴프레서의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고, 호스를 통해서 압축 공기가 나온다. 스프레이 통 안에 물감을 넣고 호스를 꽂은 후 분사를 하면 된다. 차량 도색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작업실 한편에는 그의 그림도구인 유화스프레이가 널려 있었다. 작가는 한동안 그림 그리기에 소홀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인체의 윤곽선을 세밀하게 그리기 위한 꼼꼼한 테이핑 작업이나 유화스프레이를 분사할 때 강약을 조절하는 섬세함은 교직에 몸



담고 있는 동안 연마했던 기술들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내용적 차원 역시 그의 삶의 길을 따르는 어떤 연속성이 있었다. 우주적 신비로 외연을 확장했던 젊은 날의 그림들은 연륜이 쌓여가며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는 굴착기로 변모한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포근한 모성을 상징하는 그의 작품들은 풍요로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열망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작고 가는 구멍이지만 다채롭게 흩뿌려지는 유화 스프레이의 특성처럼 하나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색으로 분출되는 것이다. 또한 확정된 형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로 남겨진 여성의 뒷모습은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의 작품은 그림을 마주한 관객들에게로 열려 있다.



강선보 작품 <태양>

새로움, 변화에 대한 추구

양순주 작품이 매개가 되어 작가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기 정진(경신)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관계 맺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동인 활동이 아닐까 한다. 이를 지속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강선보 혁 미술동인전, 부산해운대작가전, 남부현대미술전 등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이 미술판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반발로 서울을 제외한 이남의 작가들이 클럽을 만들어 남부현대미술전을 기획했다. 혁은 불꽃 빛날 혁(焜)이라는 이름 그대로 부산의 신진 작가들의 불타오르는 정열을 쏘자는 의미로 결성한 단체이다. 혁 역시 미술계



의 고정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새로운 것, 현대적인 것을 지향하며 순항하다가도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창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발전적 해체냐 지속이냐 하는 기로에 놓이기도 했으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며 인간적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삼국교류전을 행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을 때, 처음 마음속에 지녔던 실험정신과 패기, 정열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나를 따라다닌다. 글을 계속 쓰면서도 어떤 글을 써야 할까, 또 글을 쓰는 일과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일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여전히 내 머리를 어지럽힌다. 글을 쓰는 일이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단독적인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나르시시즘적인 것으로, 독단적인 것으로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어야 한다. 이는 공동 작업, 협업과 같은 실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찾아질 수도 있다. 그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림은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에 약간 흠칫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력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쩌면 내가 조금은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1963년에 결성된 혁에서 여태껏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동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오래도록 했다. 간단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하면서도, 서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기획, 전시를 행함으로써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자 하는 계기로 삼아 나간다는 것. 그 속에서 관계는 회복되거나 깊어진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시간의 결들은 울퉁불퉁할지라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씨줄과 날줄이 엮여 직조해낸 텍스트처럼. 그것은 곧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캔버스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

프랑수아 오종의 신작 <프란츠>를 보았다. 에른스트 루비치의 영화 <내가 죽인 남자>(1932)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프란츠로 분한 피에르 니네이의 흡인력 있는 연기, 베니스 영화제 신인여우상에 빛나는 플라 비어의 절제된 감정 묘사와 함께 흑백과 컬러를 적절하게 배치한 감독의 탁월한 연출 감각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프란츠가 전사한 후, 그의 약혼녀와 부모님이 사는 독일 마을에 한 남자가 찾아온다. 프란츠와 함께 음악원을 다닌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와 보내는 시간들 덕택에 세 사람은 위로받는다. 침울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아드리앵은 어떤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 그러나 아드리앵은 사실 전장에서 프란츠에게 총구를 겨누고 그를 죽인 장본인이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독일까지 찾아온 것이다.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드리앵은 프란츠의 약혼녀 만나에게 그 사실을 고백한다. 다음날, 밝고 다정했던 그녀는 냉담하게 아드리앵을 떠나보낸다. 그녀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프란츠의 죽음을 알게 된 직후처럼 다시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다 결국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다. 프란츠의 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두 사람의 결혼을 바라는 부모의 제안으로 안나는 아드리앵을 찾아 나선다. 프랑스로 가는 여정에서 독일인-프랑스인이 서로를 경계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 아드리앵이 찾아왔을 때, “모든 프랑스인은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다.”라며 그를 쫓아낸 부친의 말 역시 이를 상징한다.) 안나는 전쟁으로 희생당한 인간들이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현실을 프랑스에서 체감하게 된다. 문학을 사랑하고 음악으로 교감을 나누었던 프란츠가 만나에게 편지로 알려준 프랑斯拉는 낭만적 세계는, 사실상 환상일 뿐이었음을 목격한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안나는 우여곡절 끝에 아드리앵과 만난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해후는 예견된 것처럼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다. 어느새 안나의 머릿속

은 아드리앵으로 가득 차버리지만, 간신히 일상을 회복한 그에게 안나는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약혼자를 상실한 아픔을 가진 만나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딱 거기까지가 아드리앵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도덕적 선을 넘어설 수 없는 아드리앵과 너무 늦었음을 직감한 안나는 기차역에서 짧은 키스를 나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둘의 관계는 절제된 듯하지만 애뜻함이 묻어나는 입맞춤으로 연출된다. 바이올리니스트 아드리앵은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죽음/죽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며 괴로워한다. 나약한 예술가는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용서받기 위해 독일행이라는 단호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연약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다. 오종은 전쟁과 예술, 사랑/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이처럼 미묘한 감정의 차이, 모순된 심리들의 교차로 섬세하고 노련하게 연출해 낸다. 특히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는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자살>이 놓여 있다. 프란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림, 아드리앵의 방에 상징적으로 걸려 있던 그림, 영화의 말미에서 만나 앞에 놓여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루브르를 다시 찾아가 만나 마네의 그림을 감상한다. 그녀의 옆에서 한 남자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안나는 대답한다. 삶을 유지하고 싶게 해 준다는 것. 서로의 곁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주는, 그럼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마네의 <자살>이라는 역설이 아닐까. 캔버스는 말한다.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는가.



1 강선보 <상항>



2, 3 양순주 공저 <1980년대를 읽다>
<유토피아라는 물음>

강선보

서양화가

남부 국제현대미술제 1회~3회
부산 미술동인전 1963년~2016년
해운대 작가회 1994~2016년
부산미술제, 회화제, 미술대전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영상과 반향전(개인전)

중국톈진 아카데미 초대 개인전
한국 러시아 우정의 가교전
한국, 중국, 러시아 삼국교류전
구인전 2006년, 2016년
부산미술협회 원로회원

양순주

문학평론가

2013년 <해석과판단>으로 비평 활동.
계간 <오늘의문예비평>과 비평공동체 <해석과판단>에서 활동 중,
웹진 <문화 다>에서 '양순주의 독립영화회' 코너 연재
공저 『1980년대를 읽다』, 『유토피아라는 물음』

부산의 해양문화를 말하다

글 | 정원조 (재)강원발전연구원 관광환경실 연구원
사진제공 | 국립해양박물관, 만디버스, 사상구, 낙동강생태탐방선 을숙도사무소

부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약주를 드시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기분 좋아 부르시던 노랫말 속에서였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부산항 그리고 부산이라는 말은 그렇게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가끔 마스크에서 부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립해양박물관



1. 감천문화마을, 2. 만디버스

변화무쌍한 역동적인 해양도시 부산

예전에 내가 알던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에서 해수욕을 즐기거나 자갈치시장, 민락동 회센터에서 해산물을 먹는 것이 전부였지만, 10여 년 전부터 국립해양박물관을 비롯한 미술관, 아트센터 등 다채로운 문화시설이 곳곳에 세워지고 마을단위 문화창작공간인 또따또가나 감천문화마을, 이바구캠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생긴 것 같다. 또한 대형백화점, 초고층아파트 등 초고층 건축물들도 많이 생기고, 해운대 신시가지나 센텀시티를 가보면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놓은 첨단도시의 모습에 놀라곤 한다. 해양공간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항 재개발, 오륙도 재개발, 갈매길, 해파랑길 등 수변 공간 정비로 친수공간이 대폭 확대되어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슬로건처럼 방문할 때마다 놀라움을 안겨주는 변화무쌍한 해양도시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산만디에서 바다를 조망하다

본디 부산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산이 많은 도시이다. 특히 부산 사투리로 산고개라는 뜻의 ‘산만디’가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대거 들어서면서 복잡하게 형성된 취락을 쉽게 볼 수 있다. 슬픈 역사가 서려 있는 장소이지만 산비탈 아래 웅기종기 모여 있는 취락을 따라 형성된 꼬불꼬불한 산복도로에서 부산 도시경관과 바다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외지인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남겨준다. 최근에는 지그재그 꼬부랑길을 버스로 탐방하는 시티투어(만디버스)가 생겨 쉽고 편리하게 산복도로의 주요 포인트에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민족으로서 부산인의 기질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부산인의 기질을 빼놓을 수 없다. 역세고 거친 입담과 무뚝뚝한 사투리 억양으로 대표되는 이미지는 상업영화 ‘친구’ 나 ‘국제시장’ 등을 통해 외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산 사투리의 음운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말 속에 주로 경음(된소리)과 격음(거센소리)으로 구성되어 거칠게 느껴지며, 전체적으로 억양이 내려가는 형태로 음절길이가 짧고 단정적이기 때문에 무뚝뚝하고 직설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이미지는 낙동강으로 내륙과 단절되고 험준한 산과 해안



에 접한 변방에 입지한 부산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부산의 인구는 19세기 후반 개항과 함께 무역항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내 해상 물류운송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게 되자 부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필요하게 되었는데 식민지 시기 이들 상당수가 외부에서 대거 유입되어 거친 바닷일을 하는 뜨내기들로 채워져 부산인의 해양민족적 기질도 이러한 이미지를 고착화하는데 한 몫을 한 것 같다.

부산의 해양역사 변천과정

올해로 개항 140주년을 맞이한 부산항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한 항만으로 바다와 함께 한 수많은 해양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부산의 해양역사를 부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항 이전에는 대구, 청어 등을 주 어종으로 한 수산업이 발달했으나,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과의 식품·방직 등 경공업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에는 수산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는데 어류보다는 양식어업의 발달로 해조류, 패류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대 수출 위주의 공업화 정책으로 부산항은 국내 무역량의 90% 이상을 차

지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도시에도 무역항이 많이 생겨 비율은 많이 줄었다. 하지만 현대 수출입 무역의 컨테이너화 추세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량은 국내 95%를 차지하여 국내 최대 무역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해양문화거점도시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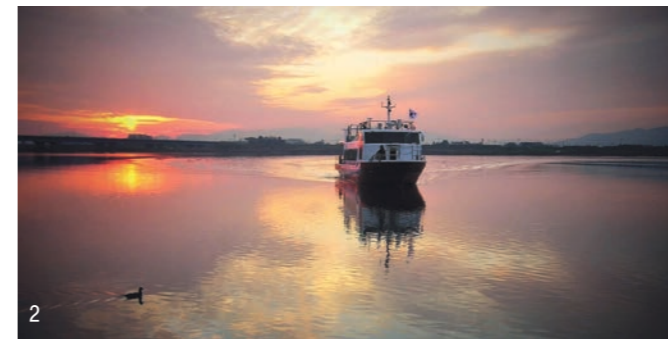
2005년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의 경우 동삼혁신지구에 해양·수산 분야의 4개 공공기관, 센텀혁신지구에 영화·영상 분야의 3개 공공기관, 문현혁신지구에 금융 등 분야의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우선 영도 동삼혁신지구에는 세계적인 마린 테크노폴리스로 육성되며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유관 기관 13개가 입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심지에 랜드마크 시설과 해양친수공원 등 시설정비를 중심으로 주변에 민간투자 촉진, 해양연구, 관광 측면에서도 활기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 센텀시티 시네포트 단지 내에 조성될 센텀혁신지구는 영화·영상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개발되며,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유관기관 7개가 입지할 예정이다. 끝

으로 문현혁신지구는 금융중심지로 특화 개발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외 11개 유관기관이 입지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이 모두 이전을 하면 부산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인적·물적 교류 증대, 해양연구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진흥, 영상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영상산업 육성 등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해양문화거점으로 명실상부한 국제 해양문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산

지난달 옹호만 다이아몬드베이 요트투어에서 시작된 부산탐방은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타고 낙동강 일대를 순회하면서 삼락공원 주변에 조금씩 피어난 억새풀과 작은 코스모스를 보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코스모스의 꽃말처럼 부산 사투리에서 나오는 직설적이고 거친 이미지 내면에는 꾸밈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솔직함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몇 해 전 오랜만에 방문한 부산에서 급격하게 변해버린 첨단 도시 모습에 다소 어색하였지만 그래도 추억이 깃든 자갈치시장에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며 복잡하고 다소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시끄럽고 소란스럽지만 사람 사는 정이 있어 살기 좋고 언젠가 살아보고 싶은 행복한 도시 부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이 좁으면 좁다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겐 아직 안 가본 곳, 모르는 곳이 더욱 많기에 계속해서 방문하고 싶어지는 제2의 고향이다. 이번 가을 2016 부산꽃축제를 볼 겸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해야겠다.



1. 삼락공원
2. 낙동강 생태탐방선



사진작가 문진우

올 댓 부산, 사진가 문진우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부산은 없다

글 · 사진 |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교수 (인도사 전공), 사진비평가

문진우 사진작가

동아대학교 영문학과 졸 / 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부산매일신문 사진부 기자 - 부장 역임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사진기록 담당관 역임
2003년 대구하계U대회 공식사진기록 담당관 역임
사진 전문갤러리 <포토갤러리 051> 관장 역임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진가는 여럿 있다. 지금은 돌아가신 최민식 선생이 그 대표적인 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진가가 있다. 그런데 그 여러 사진가 가운데 부산에 대해 가장 많은 사진을 남긴 사진가가 누군가라고 질문하면 지체 없이 '문진우'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는 대상으로서도 부산의 모든 것을 찍었지만, 사진의 장르로서도 매우 다양한 사진을 찍는다. 해운대,

다대포, 송정, 청사포 등 부산의 바닷가는 물론이고 범어사, 삼광사, 사직야구장, 서면, 남포동, 자갈치, 영도, 하야리아 부대 등 그가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 곳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부산의 곳곳을 찍었다. 때로는 무덤덤한 기록으로, 때로는 사진가의 감성을 이입한 서정적인 시풍(詩風)으로 때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불어

넣은 다큐멘터리로서 그는 사진 작업을 하였다. 사진가 문진우의 지난 40년은 카메라에 취해 사진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다. 두주볼사, 시인 변영로가술이라면 그 어떤 술도 가리지 않았듯, 사진가 문진우는 그 어떤 사진도 가리지 않았다. 콘테스트에 출품도 해보고, 작품이라고 콘셉트를 잡아 작업 하곤 했지만, 이내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지금은 그냥 사진만 찍을 뿐이다. 산이 거기에 있어서 산을 오른다고 어느 등산가가 말했듯, 찍을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좋아해서 찍을 뿐이다. 딱히 작품이라고 정해놓거나 목표로 삼고 정진해 왔다고 말하진 않는다. 찍어 놓고 나니 그것이 오래 묵혀져 기록이 되고, 그것이 작품이 되면 그것으로 좋고 안 되도 그만이다. 그 작품성에 목매달거나 시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다.

사진가 문진우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공부보다 사진을 더 많이 공부하고 몰두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본격적으로 작업 같은 것을 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도시 아웃사이드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작품이 되었지만, 딱히 그들에 대한 기록으로 어떤 작품을 남기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작품이 되는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이상으로 고민하거

나 애꿎은 적도 없다. 그런 점에서 문진우의 사진은 그야말로 사진적이다. 철저히 도구적이라는 의미다. 자기 정체성이 없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멀티 정체성이라 해야 하나? 그러다 보니 문진우의 사진 안에는 온갖 장르가 없는 게 없다. 메시지가 강한 다큐멘터리에서부터 별 메시지 없는 오래된 다큐멘터리 그리고 무미건조한 다큐멘트까지, 사형 사진에서부터 관념 사진까지 때로는 내 마음이 가는 바에 따라, 때로는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찍는다. 문진우는 사진에 관해서만은 그야말로 르네상스적 사진인이다.

문진우가 대상을 보는 시선은 최민식의 그것과 많이 달랐다. 부산에서 사진을 시작했으니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사진의 기법과 분위기가 그렇다. 스냅 샷을 하면서 주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고자 하였는데, 사실, 그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은 사건에 대한 구체성이 배제된 것으로 역사적 해석을 위한 기록 자료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을 많이 갖게 하는데 최민식은 그 순간 포착을 통해 질긴 휴머니즘을 재현하고자 하였고, 문진우는 그것을 통해 도시속 외딴 이질감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당연히 연출된 사진도 없고, 시선의 큰 변화도 없다. 최민식과 마찬가지로 전체 시대상을 기록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



2010, 하야리아, 문진우

경(遠境)이나 전경(全景) 같은 것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에게 다큐멘터리 사진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세계의 주제적 해석과 그것의 전달 매체이다. 그렇지만 문진우의 시선은 최민식보다 훨씬 다양하고, 부드럽다. 최민식이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에 대해 강렬한 휴머니즘 차원에서 격문같이 무겁게 가지면서 작업을 했다면 문진우는 좀 더 문학적인 차원의 세계에 대한 해석을 하는 시와 같이 작업을 한다.

부산에서 거주하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진가가 부산을 찍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찍는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누구나가 잠깐 한 그 낭만의 세계, 그것을 담는 사진은 비록 소재 주의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사진은 마음 가는 대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다를 찍고 싶어 집을 아예 해운대로 옮겼고, 그리하여 아침저녁으로,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대로 바다와 하늘을 담는다. 그리고 1997년 전시를 했다. <바다, 하늘 그리고 오브제>다. 자신이 숨이 멎을 듯한 감성을 잿빛 바다에서 느꼈다면 그 감성 그대로, 설사 그것이 싹 티 나는 보통의 감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카메라로 담을 뿐이다.

<비정도시>88년 용두산공원, 문진우



부산하면 떠올리는 장소 중의 또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산복도로, 라는 게 있다. 산의 배를 갈라 길을 내고 동네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부산에 있는 지역이다. 산복도로는 사진가 문진우가 사진 시작할 때부터 주목해 온 소외된 도시 사람들의 섬이다. 젊은이는 떠나고, 남은 건 허리 굽은 노인들 밖에 없다. 사진이란 작품을 위해 찍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꽃히니 찍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그들이 사는 모습을 내 마음 가는 대로 찍어 기록할 뿐이다.

문진우의 자기 시각을 배제한 다큐멘터리, 즉 객관적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한 다큐멘터리로서의 사진은 <하야리아 Hialeah>이다. 이 사진은 1950년 들어선 부산의 한 미군부대가 2006년 폐쇄됨에 따라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놓기 위해 부산시가 위탁한 공식 사진가로 참여하여 남긴 작업이다. 사진가 고유의 시선이나 시각이나 특별한 메시지는 없다. 다만 사진가가 재현을 했다면 그 장소가 폐쇄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그 느낌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우리의 시민 공원이니 좀 더 밝고 활기차게 그릴 수도 있겠으나 사진가는 그러한 사회적 해석 이전에 대상이 갖는 쓸쓸함을 우선으로 본 것이다. 해가 뜰 무렵부터 시작하여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를 지나 사물이 어둠 속으로 들

<비정도시>90년 전철내, 문진우



<내 맘속 다큐한장>76년 강서 명지, 문진우



<비정도시>85년 남포동, 문진우

어가는 밤 시간까지 모든 모습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담았다.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눈 내린 겨울도 있다. 사진가가 1998년 부산전국체전과 2002년 부산아시아안게임부터 20년 가까이 쌓아 온 무미건조한 공적 기록의 내공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사진가 문진우는 부산 사진가다. 부산을 주로 찍고 부산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소위 중앙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특별한 줄도 닿지 않은 변방의 사진가다, 라는 의미다. 그가 첫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1993년에 <불감 시대>라는 제목의 도시 풍경이었다. 그는 도시를 '불감'과 '상실'이라는 키워드로 읽었다. '상실'은 70,8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드러난 도시 공간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언어다. 사진가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간 기록적 성격이 짙은 전형적인 80~90년대 다큐멘터리 스타일이다. 대상을 재현하는 스타일상은 특정한 기법에 치우치지 않고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별히 어떤 스승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줄에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빛진 적도 없는 팔십년 대 이 땅에서 자생하여 일각을 이룬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표상이다.

부산이라는 한 지방의 사진가 문진우가 2016년 서울 충무로에 있는 갤러리 브레송의 기획전 '사진인을 찾아서'의 여덟 번째 주자로 초대받아 전시를 했다. 학맥이나 인맥 등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성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자는 그래서 뻥 없고 힘없는 숨어 있는 사진가 고수를 찾아 발굴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전시다. 비록 큰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단체가 보증하는 것도 아니며, 화려한 전시를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묵묵히 작업만 하는 그를 부산 아닌 서울에서도 눈여겨보고 인정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표적 사진 출판사인 눈빛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눈빛 사진가선의 스물여덟 번째에 선정되어 그의 대표작이 <비정 도시>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부산의 사진가 지망생들에게 문진우는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역할

글 · 사진 | 함수경 신라대학교 외래교수,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표

문화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¹⁾의 대안적 개념으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되었다. 문화의 민주화 정책에서 정부는 예술센터나 미술관을 세워 유명 공연이나 미술작품을 순회 전시하면서 질 높은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 연극 등의 고급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고급문화^{the best for the most}' 정책은 취지를 벗어나 예술은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며 예술가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작품은 일반 대중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문화민주주의는 중앙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던 문화예술 정책을 시민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

1)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문화정책의 지향점으로 등장한 것이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이다. 문화민주주의의 이념은 오페라, 발레, 교향악, 연극 등 고급 예술의 대중화를 주창하는 전통적인 이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고급예술의 대중화 정책은 다수의 대중이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창조해 나갈 권리를 제한 혹은 방해한다고 보고, 대중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창조해 나갈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대중에게 예술 참여 기회와 균등성, 문화의 생산수단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한다. 전병태(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연구.



고, 일상의 삶에서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상향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즉 문화예술이 순수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만의 예술이 아니라 개개인의 창조적 활동으로 문화적 역할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부산의 문화예술창작공간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예술 참여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민과 예술가의 성장에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어떤 시설보다 시민 가까이 있으며, 시민 속에 함께 예술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산의 창작공간들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²⁾ 이외에도 위치나 환경에 따라 드러나는 색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술로 지역의 생기를 돌게 하고 있다. 빌 토마스³⁾ Bill Thomas 박사는 인간의 생기를 가라앉게 하는 약은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생기를 끌어 올리는 약은 없다고 했다³⁾. 하지만 예술로 그것이 가능해보인다. 예술이 인간과 지역에 생기를 돌게 하고 소통, 경험의 예술로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교화^{education}될 때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장소'에서 열린 '광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예술가에게 그 규모나 위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 작업실로 이용하거나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작품 활동 중에 예술가의 작업과 지역 시민과 연관되는 문화 예술교육을 기획하거나, 주민과 함께 실행시킬 수 있는 기반을 추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자리 잡은 지역의 시민들은 환경적 특성이나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문화적 활동과 자원 그리고 지원으로 문화적 접근성^{accessibility}이 높아진다. 이렇게 시민과 예술가가 상호작용하는 장소가 열린 광장으로의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가 실현되는 곳이 될 때 문화생산자인 예술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예술가가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시민과 만나는 실험을 하는 동안 경험되는 예술은

2) <http://www.bsca.or.kr/10/01.php> 부산문화재단 창작 공간(감만창의문화촌, 흥티아트센터, 또따 또가 외)

3) EIFD 2014 'ALIVE INSIDE' DR. Bill Thomas, MD.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산되는 새로운 생각이 실행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을 하면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날 때, 과연 예술이 가지는 소통, 경험으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1. 소통 장소로의 창작공간인가?

소통이란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거나,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하는 것이다⁴⁾. 창작공간에서 예술가와 시민은 예술작업을 통해 소통의 과정을 경험한다. 예술 작업을 통한 소통이란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 감상 이외에도 내적 감각⁵⁾으로 예술적 요소 그리고 상징적 질서를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작업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접고, 오리고, 연주하고, 춤추는 것에서 넘어 작가의 의도를 여과·편집·해석·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이어 질 때 활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지역 주민과 공단 근로자에게 예술이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쉽게 언제나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예술가에게는 개인적 감정과 감각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세계와 연결된 교류의 문고리를 당길 기회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창작공간에서 예술교육은 시민에게 예술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에게는 세상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감각적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에 좀 더 빠르고 확산적인 기술의 힘을 지불한 대가로 사람들의 직접적 접촉의 필요성은 사라지는 현실에서 예술작업은 깨어있는 교육과 협동학습으로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4)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46667&supid=kku000184422#kku000184422>

5) Lou Marinoff(2003), 철학상담소(philosophy can change your life)

2. 경험으로서의 예술이 가능한 창작공간인가?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예술교육은 논리적 체계화된 내용을 넘어 감각적으로 예술을 직접 탐색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다가서고 있다. 창작공간에서 생생한 예술교육이 자연스러운 소통의 경험이 될 때 예술의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은 질적으로 세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 경험의 직접성과 완성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⁶⁾. 창작 공간에서 시민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에서 '구경' 하며 대상화했던 예술을 경험의 직접성과 완성으로 예술가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가의 작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눈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미완성 캔버스에 흘러내린 물감에서 나오는 소리, 작곡된 연주에서 보이는 거대한 물질, 멈춰 있는 몸에서 보이는 생명력 그 모든 에포트^{effort}는 예술가가 작업하는 공간 그 장소에서 몸으로 경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발한 신체적 행동이 있고 난 후에야 진정한 사고가 가능하며 머리뿐만 아니라 손과 신체의 다른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동안 획득한 것을 체계화하려고 할 때 진정한 사고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다⁷⁾. 예술가의 질적인 세계를 만날 때 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의 실천⁸⁾이 된다. 이때 예술가가 직접적으로 예술에 대한 본성을 고민하지 않거나 예술의 본성이 교육과 맞닿아 있음을 몸소 느끼지 못하면 예술이 시민들을 만날 때 예술가의 질적인 세계를 나누기는 어렵다. 이렇게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예술교육은 물리적이고 감각적이며 신체적으로 발산되고 표현된다. '발산'은 폭발적이고 즉흥적이며 여운 없이 모든 것을 소모하는 것이고 '표현'은 바로 거기 멈춰 서고, 한걸음 내딛으며 성장하는 것으로 완성될 때까지 마무리하는 작업과 연구다. 예술가는 발산과 표현을 통해 자신의 작업에 대한 예술 원리와 신념 그리고 철학과 이론을 체계화하며 예술교육으로 새롭게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창작공간에서 균형 잡힌 발산과 표현은 곧 예술가의 자아실현으로 대중을 고양^{edification}시킬 수 있는 경험으로서의 예술로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의 몸짓은 인간의 다른 어떤 특성보다 그 사람의 지성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¹⁰⁾고 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예술가의 경험이 몸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술교육 실천은 시민에게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론보다 더 공감될 수 있다. 첨단인 어떤 지도라도 그 지방을 탐험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술교육의 생생함은 예술가의 몸으로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예술함으로써 모든 시민은 예술가가 된다.

6) Dewey(1934), Art as Experience.

7) 움직임의 질, 노력

8) Dewey(1938), Experience & education.

9) 예술교육의 실천은 예술의 본성을 제대로 알고 몸으로 느끼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예술의 본성은 교육의 본성과 맞닿아 있다. 김연희(2012), 존 듀이의 교육 미학.

10) <http://daver.kr/xe/173688> 송종건

부산의 연극

문화 돋보기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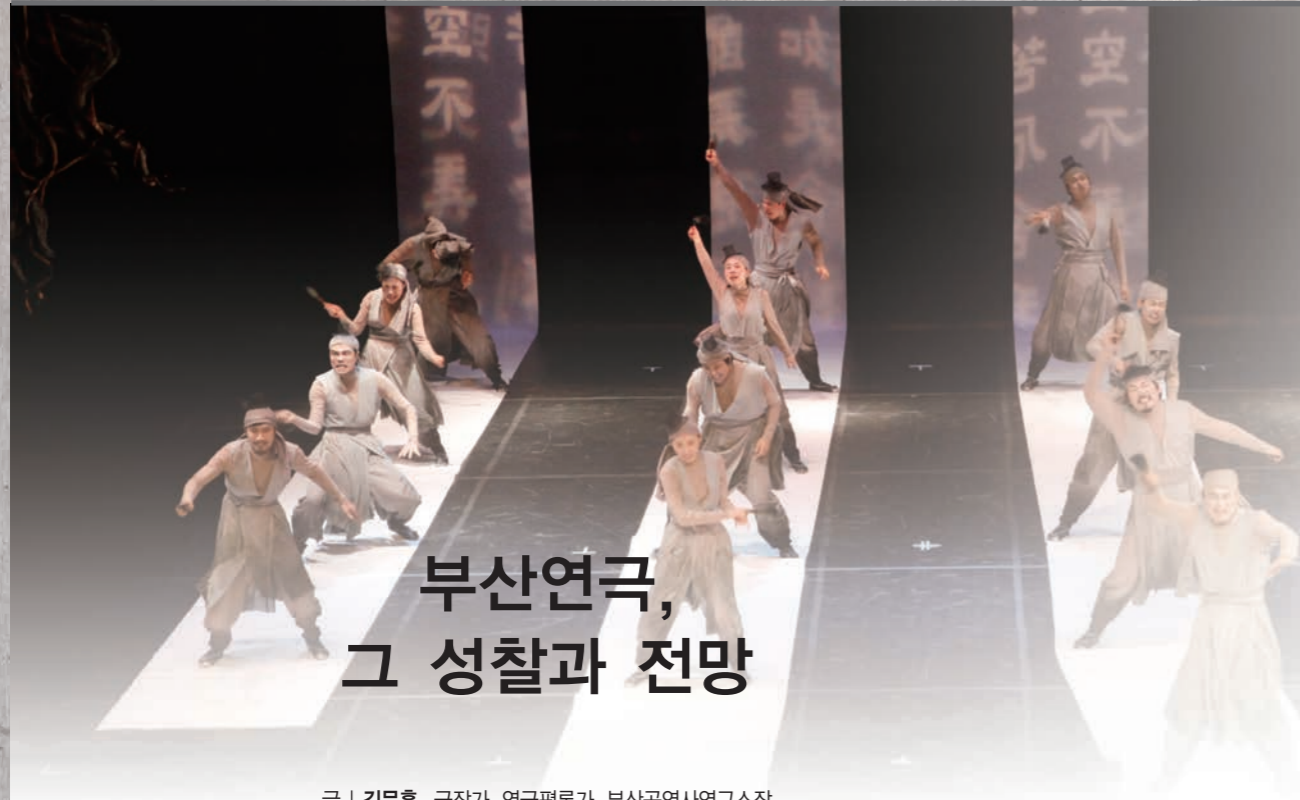
068

부산연극, 그 성찰과 전망 김문홍

072

부산의 연극 김성배 김영희 이혁우 정경환





부산연극, 그 성찰과 전망

글 | 김문홍 극작가, 연극평론가, 부산공연사연구소장
사진제공 | 부산연극협회, 나소페스티벌, 부산소극장협의회

부산연극의 현재적 지형도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성찰 없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부산연극의 명확한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연극의 현재적 지형도는 어떠한가. 우선 부정적인 현상부터 진단하면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방향성과 목표가 불투명하다. 각개전투식의 연극적 작업은 활발한데 부산연극의 정체성과 전통을 기반으로 독창적 미학과 방법론이 부재하고, 각 분야에서 발군의 인재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기는 한데 발전을 위한 총

합으로서의 연대가 부족하다. 연극예술의 작업적 성과를 위한 체계적 기록문화와 비평이 부진하고, 진단과 비전을 위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각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극작가는 우후죽순 격으로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는데, 진정한 연극텍스트로서의 뛰어난 희곡을 생산하는 작가는 드물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극평론가인 김남석의 극단사 정리 작업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 그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 된 극단인 전위무대를 대상으로 『전위무대의 공연사와 공연



연극 비평전문지<봄>

미학』(2014, 도서출판 해성), 30여 년 간 독창적인 연극 방법론을 견지해온 부두연극단을 대상으로 『부두연극단의 공연사와 공연미학』(2015, 연극과 인간)을 연달아 상재했으며, 현재 극단 열린무대와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의 연극 작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곧 그 결실이 드러날 예정이다.

다음은 비평매체의 발간이다. 연극배우 진선미가 연극비평 전문 무크지인 『봄』을 지금까지 6호나 발간해 오면서 부산지역 연극 공연에 대해 비평 작업을 해오고 있다. 거기다 비평 글쓰기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신인 비평가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평 전문지 『봄』을 통해 의미 있는 연극 공연을 집중 조명하고, 연극 이슈와 시론, 그리고 공연리뷰를 통해 전문 비평가, 관객 비평, 타 장르 비평가를 동원하여 부산연극의 작업성과를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공연사연구소>의 활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지난 2013년에 부산문화재단과 후원으로 부산문화예술 전자아카이브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연극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부산연극 자료를 집

대성하여 탑재했다. 부산지역의 연극예술인, 공연장, 공연단체, 연극행사, 주요작품, 연극관련 학과 및 평론 학술에 대한 자료를 총집대성하여 부산연극사를 재정비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현재는 부산연극인 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곡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상 제도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4년부터 최우석 치과원장의 재정적 후원으로 <김문홍 희곡상>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해에 초연된 부산지역의 창작희곡이나 처음 발표한 희곡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하고 있는데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극작가이며 연출가인 최은영(제1회), 김숙경(제2회)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12월에는 제3회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젊은 연극인들의 연대를 통한 연극작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나다소극장 주최로 시행하고 있는 <나소페스티벌>과 수년 전부터 청춘나비소극장 주최로 진행해오고 있는



단막극 페스티벌 행사인 <나는 연출이다>가 바로 그것이다. 나소페스티벌은 30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연극인들이 연대하여 공연작품의 테마와 콘셉트를 설정하여 당대 현실에 대한 예리한 현실인식과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연극미학으로 지역연극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춘나비소극장의 단막극 페스티벌 역시 20분 내외의 단막극 공연을 통해, 신인 연출가의 등용문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페스티벌은 관객과 전문비평가가 공연 후에 평점을 매겨, 우수한 작품에는 재정적 지원(보조금, 공연장 제공)을 하여 다음 해에 장막극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젊은 연극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관습적 나태에 빠져 있는 기성 연극인들의 흥미한 연극정신을 일깨우는 한편, 상업적 연극 환경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순수연극의 해방구로 부산지역 연극의 지평도를 새롭게 형성하는데 큰 몫을 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시행해 온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의 페스티벌도 침체된 부산연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단체는 소극장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극단의 연합체로, 계간 연극소식지<보고보고>발간, 신인 배우 발굴,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을

통해 부산연극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연극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한·일 연극 교류를 위한 연극 축제도, 부산연극의 글로벌 전략을 위한 시금석 역할로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연극 전망을 위한 제언

부산은 현재 약 40여 개의 극단과 30여 개가 넘는 소극장이 있을 정도로 양적 팽창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외적이고 현상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내적 성장은 담보 상태에 있다. 길거리의 담벼락에서는 정체불명의 연극 포스터들이 난무하고 있어,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연극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뜻 있는 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연극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지역 연극계에서 버리고 싶은 유산을 과감하게 추방해야 할 것이다.

400여 명의 연극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모두가



연극 소식지(보고보고)

구심점을 잃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연대감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연극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가 보면 참석한 관중보다 주제 발표자가 더 많은 정도로 그 참여율이 저조하다. 개별 극단들은 공연 행위에만 급급할 뿐 타 극단의 공연에는 외면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공연의 예술적 성과와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는 소홀하고, 공연의 가치 평가에 대한 비평적 작업에 대해서도 무관심과 냉대의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극작가는 많은데 뛰어난 극작품은 별로 없다. 지금까지 부산연극제의 창작 초연이라는 제도에 의해 극작가를 양산하는 일에만 급급했지 스타 시스템으로 뛰어난 극작가를 키우는 데에는 소홀했다. 이제는 양적 시스템에서 질적인 포커스로 전환해야 한다. 한 두 명의 작가라도 제대로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공연과 비평은 동전의 안팎과 같다. 비평이 활성화되어야 제대로 된 공연 활동이 정착된다. 연극은 현장 작업자가 존중되고 그들에 의해 연극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예술과 연극 관련 단체의 장들은 대부분 현장 활동을 하지 않는 소위 '관변 예술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 연대를 이루어 행사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연극인들은 사분오열되어 힘 있는 문화 권력에 편승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

연극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옳은 소리와 쓴 소리를 하는 이들을 오히려 너그럽게 포용하여 그들의 제언과 충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체의 정책 결정에 무비판적으로 찬성하고 부화뇌동하는 세력들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이처럼 열린 사고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부산연극의 발전은 요원하다.

부산연극은 무한한 잠재적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연극 작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연극을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회귀해야 한다. 연극은 삶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연극인이 삶과 인간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이다. 연극은 기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인간에 대한 진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종이 범용에는 관심이 없고 젓밥에만 눈독을 들이면 그 절은 결국 망하고 만다. 결국 모든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고, 기교가 아니라 작업에 대한 진정성이다. 이것이 부산연극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연극

일 시 2016. 9. 9(금) 오후 4시

장 소 감만창의문화촌 3층 회의실

사 회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좌담자 김성배 한결아트홀 대표

김영희 연극비평가

이혁우 부산시립극단 배우

정경환 극단 자유바다 연출가



사회자 안녕하세요.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조정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이 인지도가 있는 장르는 아무래도 연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좌담은 '부산의 연극'이라는 주제로 부산의 연극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각자 활동하시고 계신 분야를 바탕으로 부산 연극의 뿌리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환 부산연극의 뿌리는 아무래도 1970~80년대 극단의 활동이 컸죠. 극단 전위무대, 극단 레퍼토리 등이 있었고, 학계에서는 부산대, 동아대, 수산대 등의 극회 출신 연출가와 배우가 많이 배출되었어요. 이 분들이 1980~90년대 연극계를 이끌어 왔고, 2000년 이후부터는 연극영화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부산예술대 등을 중심으로 배우들과 연극종사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혁우 제가 있는 부산시립극단은 1998년에 창단되어, 2018년도에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현재는 객종필 선생님이 예술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창단멤버는 3명 정도 있으며,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1970~80년대에의 연극은 운동적인 면이 컸어요. 학생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마당극과 민족극을 활발하게 공연했습니다. 또한, 대학(부산대, 동아대, 수산대 등) 극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매우 크고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서구의 연극 체험을 이들 극단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배 부산의 연극양식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의 동래야류, 수영야류 같은 들놀이, 마당극, 꼭두각시 등의 전통 민속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경환 연도별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1970년대에 극회 중심이나 기존의 극단들은 예전에 번역극 위주로 작품을 제작했다면, 1980년대 들어서는 연희, 민족극 등과 같은 새로운 양식을 갖자는 바람 때문에 전통 민속 양식을 가져온 케이스가 많았어요.

김영희 1970~80년대 우리의 민속 전통적인 연극들이 (포스트)모더니즘 연극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매우 실험적인 양식이 많아졌어요.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 서사극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 신선한 느낌과 동시에 우리 전통극의 한 양상을 보는 듯 익숙했습니다.



물론 서사극과 우리 전통극 형식은 다른 부분이 많지만 유사한 부분도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경환 시대적 과제가 정치, 사회적 참여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민중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극대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야류라든지 연극양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들어왔죠.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동해안 별신굿, 그리고 연희단 거리패의 '오구', 자갈치극단 등의 활동이 컸죠.

김영희 시간을 더 거슬러 생각해 보면 1920년대에는 학생극 운동이 있었어요. 동경으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그 중에서는 김우진 같은 연극 전공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죠. 이 학생들이 모여 방학이 되면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원산까지 순회공연을 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이 연극 운동의 출발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과거 학생극 운동이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사회자 네. 과거 큰 흐름을 짚어보자면 부산 연극은 야류 등과 같은 전통 양식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것에서 시작하여, 1920년대 학생극 운동, 1970~80년대에 민중극, 대학의 극단들이 중심이 되고 본격적으로 주요 극단들이 활동 및 공적인 영역의 부산시립극단도 창단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산의 연극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모든 장르들이 위기라고들 하죠. 지금부터는 각자 분야에서 부

산연극의 현주소,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저는 부산연극의 위기보다는 인문학 전체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대학생이 연극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연극 관람을 잘 하지 않죠. 연극은 뭔가 어두운 것 같고, 극장까지 찾아가는 것도 애매하고, 안 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인문학을 어렵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연극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곡 연구자들도 상대적으로 시나 소설에 비해서 참 없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서도 희곡론 같은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연구자들도 많지가 않아요. 허긴 국문과 존재마저 위협 당하고 있으니……. 또한 연극 비평하는 사람들도 다른 장르에 비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질적인 다양성과 수준도 담아가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혁우 현재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문화회관도 내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는 과정이라 예술단 민간위탁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부산시립극단은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개인의 욕심보다는 시민을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연극판에서 시립극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지만 동지애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경환 부산연극은 최근 10년 간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부산 극단들이 수적으로 적었는데, 현재는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극단 수가 늘어난 데는 연극영화과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젊은 극단의 양적인 증가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창작극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부산은 창

작극 작가들도 많지 않았지만, 창작극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어요. 대부분 작품들이 번역극 아니면 서울에서 인기 있는 우수 작품을 리마인드하는 공연이 대부분이었죠. 최근에는 부산연극제에서 창작극이 아니면 참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작극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부산의 희곡작가 양성과 좋은 창작극이 나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영희 과거에는 희곡을 쓰는 극작가가 별도로 있고 그 희곡을 바탕으로 연출가의 해석에 따라 희곡을 무대 위에 이미지화했다면, 요즘에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작업 이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극작과 연출을 동시에 하는 경우죠. 비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희곡을 공부하면서 현장비평을 하는 사람, 작가이면서 비평을 하는 사람 등으로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 따라 비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평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연극 비평의 일정한 틀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극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비평을 통해서 충분히 연극을 상상하고 미학적 접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비평 자체가 하나의 에세이처럼 작품으로 남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평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 부산연극의 현 상황을 돌이켜 볼 때,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단들은 워낙 열악하다 보니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원금을 받으면 공연을 하게 되고, 받지 못하면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좋은 공연을 올리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연 사후지원금 제도도 있던데, 부산에서도 검토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혁우 다양성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각자 색깔과 성격에 맞춰서 생겨나는 신생극단과 극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객들이 이런 성격과

색깔에 맞추어 필요에 의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발 맞춰 시립극단 또한 외부에서 하지 못하는 공연들을 올려 부산 연극판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환 네. 현재 창작극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이제부터는 창작극의 독창성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작성뿐만 아니라 작가, 연출가, 극단들의 성격에 맞춘 독창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독창성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안도 있습니다. 이런 자주적인 발전이 부산 지역의 성격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김영희 예, 실제로 '부산'은 지역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키워드로 부산을 소재로 한 연극이 있어 왔지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극단 역사에 관한 정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부산에서 이론이든 현장이든 연극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사뿐만 아니라 대학극회, 배우, 극장 등 각자 기억 속에 존재하는 역사를 기록으로 체계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부산 외부에서 정리해서 기록화하는 부분을 생각해볼 때 내부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연극계 자체에서도 기억의 기록화에 대한 공동작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연극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 지금까지 발간된 부산 연극사 관련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연극협회에서 부산연극사를 정리하였고, 김문홍 선생님이 2007년도에는 연극제 25년, 2008년도에는 해방 전후 2000년도 초반까지 정리를 하였고, 소극장사와 극단공연사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벌써 10년이 지난 자료들인 것으로 새롭게 정리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기록으로 보여 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부산연극의 거시적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료사 형식의 글들은 자료를 찾기 위해 보는 경우가 아니면 대중에게 잘 읽히지 않습니다. 이런 글들은 보통 이성애 호소하는 글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그러나 충분히 공감되는 감성적인 기록도 필요합니다.

김성배 맞는 말씀입니다. 공연보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딱딱한 내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과 에피소드들을 묶어 스토리텔링화 한다면 부산연극에 대한 배우, 관객, 작품 기록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6 공감그리고

김영희 개별 극단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연극들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경환 물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여러 가지 닥친 고민 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막상 공연이 끝난 후 사진 기록 뿐이니 아쉬울 때도 많고요.

이혁우 저는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연극제와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는데, 현재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한, 시립극단과 일반 극단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성배 부산시립극단을 보자면 부산에 굉장히 실력 있는 배우들이 많이 있지만, 문화회관이라는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립극단은 문화회관만을 위한 극단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극단이지요. 좋은 배우들의 연기력을 외부에서도 자주 선보일 수 있으면 좋는데,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야하거든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연극무대가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환 공연은 관객과 만나서 공연이 끝난 후의 시점만이 중심이 아닌, 그 공연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 충돌, 이해, 대화, 작가와 연출가의 만남 등 다양한 작업들이 중심이 되고 창작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연극은 단순히 작가가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희곡을 쓰면 연출을 통해서 배우와 스텝을 만나고 그들과의 에너지 충돌, 충돌이 해소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창작희곡 작품 발굴, 극작가 양성 문제가 있어서 부산극작가협회에서는 올해 연극협회와 소극장협의회하고, 이제까지 희곡을 작가가 쓰고 발표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낭

독공연을 함으로써 극단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일반인들도 낭독공연을 통해서 희곡의 텍스트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극작가를 발굴하고, 희곡이라는 기본적인 텍스트의 중요도를 쇼 케이스 형식으로 발표하는 기회가 곧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계속해서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방식을 찾아내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공동의 작업과 이익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경환 또 다른 소통의 측면을 보자면 극단의 속성이 변해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극단이라는 중심으로 극단에서 동인제 시스템으로 배우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은 대학의 연극영화과에서 배우를 배출하고, 극단은 작품을 제작하는 곳으로 되었죠. 그러나 연극이라는 것이 단순히 4년간 일반적인 교육으로 배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새롭게 현장에 와서 재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선배들로부터 기술적, 철학적 부분들을 전수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사회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산연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교류, 소통 창구는 확대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혁우 저는 부산연극인들의 부산지역 이탈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 연극인들이 희망이 없어요. 꿈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힘드나 저기서 힘드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고, 이왕 힘든 거 큰 곳에서 훑어보자는 마음으로, 오디션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립극단 같



은 경우에는 인원이 10명으로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단원수를 늘려주면 부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만큼 단원을 확보하다 보면 스케일이 큰 공연을 올릴 수도 있고요.

김영희 논외로 부산 소극장의 환경적인 여건에 관해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연극극장이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지하의 습기냄새, 좁은 화장실 등이 떠오르거든요. 개선이 안 될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단의 어려운 여건도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경환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은 소극장이 남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다행인거예요. 실제로 저희 극단도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 환경을 개선했지만, 임대공간으로 시간이 지나면 건물에서 결국 쫓겨나야 되더라고요.

사회자 네, 현재 흥대나 부산의 또따또가 등의 경우를 보았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예술시설에 대해서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의 연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좌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좌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맞추다

독자와의 교류 '눈을 맞추다'는
문화예술의 생생한 현장 뒷이야기, 모습 등
직접 찍은 사진을 실어
예술인들과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책 속에 갇힌 전통과 역사, 축제로 살아난다.”
역사는 지겹고 따분한 것인가?
전통문화는 저절로 이어지는가?
구경만 말고 함께 어우러져 놀아보자.
그래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정(情)과 한(恨), 아픔까지도,
춤으로, 음악으로, 연극으로 만들고 보니
흥이 살고 역사가 되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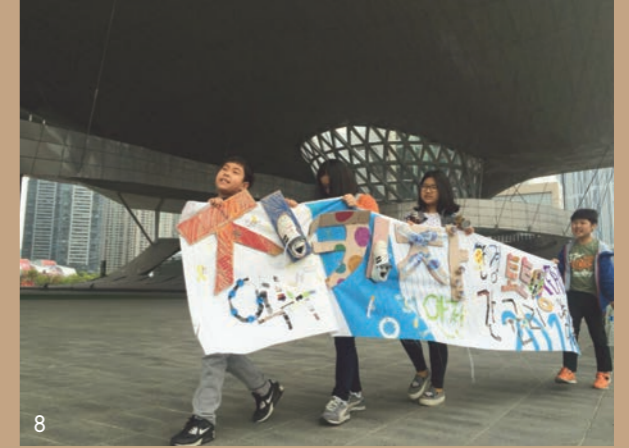


“음악을 듣는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불이 꺼지고 조명이 켜진다.
혼신의 열정으로 연주하는 연주자,
무대를 채우는 폭풍 같은 선율에
관객은 취한다. 빠져든다.
귀가 즐겁다. 눈이 즐겁다.
열정은 어디에 남는가?
직접 해보자.
음악이 온몸을 채운다.





6



8



7

“아이들이 문화와 놀면 마음이 한 뺨은 자란다.”
 아이에게서 연필을 뺏어라.
 붓과 물감, 크레파스를 쥐어줘라.
 칠판에서 떨어져 그림을 보게 하라.
 책에서 눈을 떼고
 손으로 만지고, 두드리고, 놀게 하라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진다.
 그렇게 문화를 친구삼아 놀다보면
 아이는 어느새 한 뺨은 성큼 자란다.



9



10

“마음을 열면 경계 없이 통할 수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싫증난다.
 편하게 할 수 없으면 꺼려진다.
 쉽게 접하지 못하면 멀어진다.
 문화가 그렇다.
 너무 차려입어 불편하고 어색한 것처럼
 공연히 무게 잡고 복잡하게 치장하면
 어렵고 피곤해서 오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가볍게, 쉽게, 편안하게 만나야한다.
 문화는 카페 가듯, 산책하듯 맘 편히 즐기자.



11



12

- | | |
|---|--|
| 1. 구포지신발기발표회 구포1동비석골품물단 공연 / 사진 김혜옥 | 7. 홍티아트센터 투어 / 사진 김정숙 |
| 2. 22회 동래음성 축제 뮤지컬 <외로운 성> / 사진 김연정 | 8.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토토즐 지키자 프로젝트 |
| 3. 22회 동래음성 축제 / 사진 김효숙 | 9. 공장 속 예술놀이터(예술지구 P) / 사진 박지영 |
| 4. 금정수요음악회 / 사진 강성규 | 10. 오픈스페이스배 5인 전, 작가와의 대화 식전 공연 / 사진 soon ae Yoo |
| 5. 감만아트페스티벌 / 사진 김은미 | 11. 2016 부산비엔날레 / 사진 나혜주 |
| 6. 홍티아트센터 입주예술가 릴레이전(독: Dock) 전시 / 사진 안수아 | 12. 오픈스페이스배 5인 전 / 사진 soon ae Yoo |

어둠 속의 대화, 마음을 열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글 | 오숙희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배리어프리영상포럼 부회장
 사진제공 | KNN, 시청자미디어센터, 배리어프리영화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五感). 인간은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오감(五感)은 복잡한 세상을 알아가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단 하나의 기관에 노동력이 집중된다. ‘혹사’ 수준의 쓰임을 당하는 감각 기관은 바로 ‘눈’이다. 디지털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양은 쓰나미를 방불케 하고, 시각화되어있는 이 정보들은 제대로 걸러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거의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든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는 누군가 당신을 찾아왔고, 그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아마도 당신은 그 흔적을 찾는 일로 아침을 시작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다정한 친구 혹은 귀찮은 족쇄가 되어 당신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꽂혀있거나, 걸음걸이에 따라 흔들리는 당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쥐어져 있거나. 어른 손바닥 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훌륭한 도구를 100% 사용하려면 ‘보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스마트 폰은 시각을 중심으로 발달한, 디지털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생활 도구이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순간 모든 감각 기관이 절단된 것처럼 암담해지지 않나? 마치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버린 스마트 폰처럼.



제1회 배리어프리영화축제

배리어프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없애자는 ‘운동’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장르는 건축이다.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배리어프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없애자는 ‘운동’에서 출발했다.

화면해설영화 등 다양한 배리어프리 콘텐츠의 필요성 대두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건축물이나 도시와 같은 공간적인 분야 이외에도 배리어프리가 필요한 장르가 또 있다. 바로 문화 콘텐츠다. 특히 영화처럼 누구나 즐기는 대중 영상콘텐츠에 대한 배리어프리 버전의 제작, 즉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화에 해설을 입힌 화면해설영화를 요구하는 목

소는 꽤 높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상영작 가운데 몇 편을 선정하여 화면해설과 자막해설을 입혀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필자는 2011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화면해설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해마다 10편이 넘는 작품들이 화면해설영화로 제작되다가 올해는 4편만 제작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작이 화면해설로 제작되면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지금은 부산에서 화면해설과 관련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화면해설에 관심이 있거나 활동 중인 작가, 성우, 연출자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배리어프리영상포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리어프리영화제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와 영진위의 지원으로 진행된 배리어프리영화제는 가마솥 같던 불볕더위에, 가을바람이 잠깐씩 스치던 지난 9월 초순. 부산시민공원 잔디밭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는 영화 축제로 마련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배리어프리영상포럼의 활동 역시 배리어프리콘텐츠의 필요성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리어프리 영화제작 체험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콘텐츠

영상예술인 영화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다. 어르신인 경우, 한국영화인데도 전개가 빠르거나 복선과 상징이 많은 작품은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는 분들이 제법 많다. 이들에게 화면해설영화는 친절한 안내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배리어프리 콘텐츠는 활용 범위가 꽤 넓다. 시작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작되었지만, 수용자는 그 보다 훨씬 폭이 넓은 것이다. 이와 같은 활용도는 배리어프리 오페라를 제작하면서도 입증되었다. 우선 오페라는 낯설고 어렵다. 연극처럼 한국말로 된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페라에서 대사에 해당하는 레치타티보recitativo는 거의 외국어다. 특히 이탈리아어가 많은데 이탈리아에서도 오페라를 방송하거나 공연할 때는 자막을 넣는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이미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노래하기 때문에 현대의 이탈리아인들도 모르는 언어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조수미의 말처럼 “옆에서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모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한마디로 오페라를 편안하게 즐기기에 ‘벽’이 너무 높다.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오페라를 배리어프리로 만들겠다고?

완성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지만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특히 암전 상태에서 공연된 어둠 속의 오페라 <라보엠>에 대한 평가는 호평 일색이었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원작을 해체하여 재구성한 <라보엠>은 일반 오페라 형식이 아니라, 공연장의 모든 조명을 끄고 성

어둠 속의 오페라 <라보엠>



악가들의 노래와 성우드라마 그리고 해설만으로 진행됐다. 오케스트라는 피아노가 대신했다.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은 없되,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한 노래와 아리아는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레치타티보는 성우드라마로, 아리아의 내용은 노래 전이나 후에 성우가 목소리로 연기를 하거나, 해설자가 내용을 읽어주었다. 공연 시간은 90분. 공연이 끝난 후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있던 객석에서 환호와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시각장애인은 옆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스토리가 이해되어 좋았다고 답했다. 또한 오페라를 처음 보았는데 어렵지 않고 흥미로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오페라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오페라가 오페라의 높은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다.

눈이 닫히면 다른 감각이 열리고 그때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또 한 가지, 사방이 캄캄하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귀가 열려 오히려 집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실, 배리어프리 오페라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어둠’ 곧 ‘보이지 않음’에 대한 것이었다. 도시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완벽한 어둠’을 체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도시에서 빛은, 어디선가 반드시 새어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본능적으로 그 빛에 반응한다. 어둠 속의 오페라를 담당했던 영화 의전당 조명감독의 말을 빌면,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조명이 완벽한 암전”이라고 할 정도니까.

비장애인들이 알 수 없는 ‘완벽한 어둠’과 ‘보이지 않음’을 느껴보기 위해 서울 북촌에 위치한 ‘어둠 속의 대화’를 방문했다. ‘어둠 속의 대화’는 시

각장애인 송영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100분 동안 완벽한 어둠을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체험 공간이자 카페이다. 비시각장애인은 ‘어둠 속의 대화’에 입장하면 두통을 느낀다. 눈이, 계속해서 빛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보기’를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다른 감각이 열린다. 그 감각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8명의 출연자가 100분 동안 ‘어둠 속의 대화’에서 체험하고 그려낸 세상은 저마다 달랐다. 어둠 속의 대화에 나온 출연자들은 ‘어둠’, ‘보이지 않음’은 불편한 것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결론이 어둠 속의 오페라 <라보엠>을 이끄는 용기가 됐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문화향유권 돌려주어야

어둠 속의 대화를 체험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보다 훨씬 아름답고 따뜻하지 않을까.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순수의 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그동안 마음이 닫혀있던 쪽은 장애인이 아니라 몰이해 상태였던 비장애인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어떤 부분이든지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불편할 뿐이다. 불편은 제도와 장치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건널목의 턱이 낮아지면서 장애인의 이동이 옛날보다는 편해졌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더욱 다양한 배리어프리 콘텐츠가 제작되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화예술 장르별 비평

속살을 보다

092

「시각예술」 2016 부산비엔날레 ... : 그 속에 사람이 있다 송만용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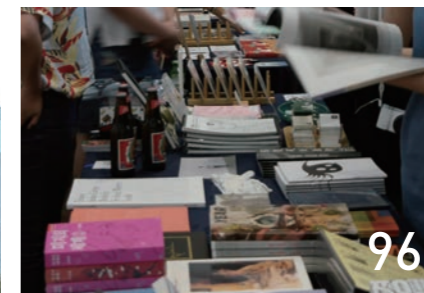
「창작발간」 독립출판을 바라봄, 바라봄 강은경

102

「예술기획」 문화가 있는 날, 두 가지 변수와 두 개의 가능성 정상도

106

「영화」 영도(影島)를 소재로 한 두 편의 부산 다큐멘터리 김이석





F1963(고려제강 수영공장)

2016 부산비엔날레 ... : 그 속에 사람이 있다

글 | 송만용 미술평론가, 동서대학교 교수
사진제공 |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대주제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Hybridizing Earth, Discussing Multitude)
Project 1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구어샤오옌(중국), 사와라기 노이, 타테하타 아키라, 우에다 유조(J-team, 일본), 김찬동(한국)]
Project 2	'F1963', 큐레이터(윤재갑)
Project 3	부산시립미술관 강당, F1963 중앙정원, 부산비엔날레 학술정책팀
주최	부산광역시,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16 부산비엔날레(운영위원장 : 임동락, 전시감독 : 윤재갑)가 시작되었다. 이번 부산비엔날레는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9일 동안 부산시립미술관과 'F1963' (고려제강 수영공장, 회장 홍영철)에서 개최되며, 22개국 118명(팀)의 328점이 참여하고 있다.

1) 약 3,000평으로 구성된 'F1963'에서 1963은 바로 공장 설립연도이다. 또한 고려제강은 철제 와이어를 생산하는 국제적인 기업이다. 여기서 철로 만든 와이어는 광안대교 등 구조물의 안전과 미감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 바로 'F1963'이다.

도시와 주민들을 위한 예술적 체험과 치유의 장

사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회를 말한다. 비엔날레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주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이거나 쇠락한 도시의 산업공간을 재생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주민들에게 예술적 체험과 역사 그리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는 행사"가 대부분이다. 2016 부산비엔날레는 시립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의 도입과정의 충격과 적응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F1963'에서는 도시 산업공간의 재생의 관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비엔날레에는 감추어진 혹은 잊어버린 시각적 감성충격으로 불편한 전시회이다. 현대미술의 동시대적 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면서 현대예술 감수성의 척도이기에 전문적 감수성과 미감이 필요한 전시회이다. 때문에 주제의 성공적인 펼침과 감염(?)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관객 수로 평가받는 불쌍한 전시회가 비엔날레이다.

90년대 전후의 비엔날레에 대한 근원적 질문

그런데 하나의 전시회인 2016 부산비엔날레를 자세히 보면, 2개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부산시립미술관의 "an/other avant-garde china-japan-korea"와 'F1963'의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이이남 <혼혈하는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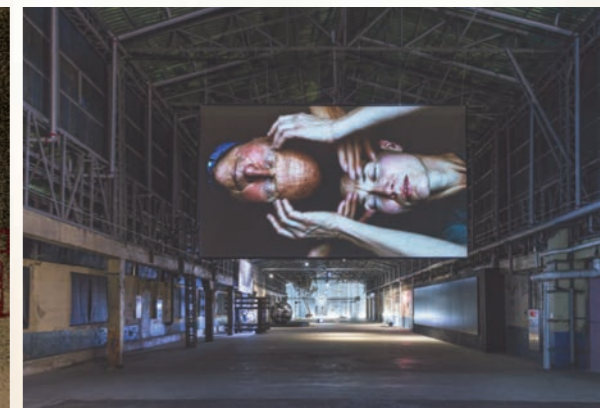


저우원도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공론장(Hybridizing Earth, Discussing Multitude)"이 그것이다. 그리고 3개의 Projec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Project1의 기획의도를 보면, "이번 전시는 이를 통해 90년대 이전의 자생적, 로컬 아방가르드 시스템과 90년대 이후에 대두한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 이들의 관계(연속-불연속-습합)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시 형식으로서의 '비엔날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며, 작가적 존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이들 작품들의 차이를 보면, 중국의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천안문사건 이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다각적으로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작가들은 자기 주변의 현실 문제를 거대한 규모와 미술외적인 표현방법론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현대미술의 파동 속에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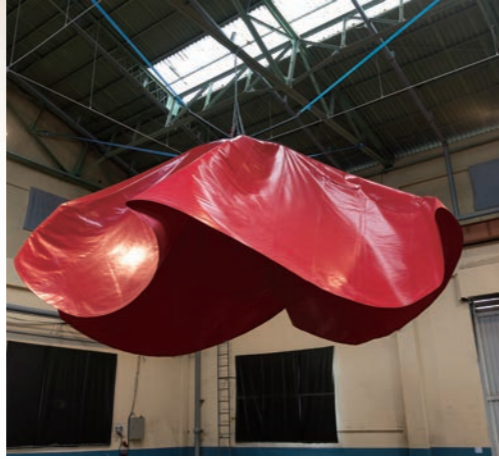
조아나 라이코프스카 <My father never touched me like that>



과 물질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우리 시간의 마디마디 속에서 각 국가의 예술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샤오강의 <혈연:대가족 3>, 조우티에하이의 <10년전>, 하용석의 <미완성의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시민의 예술적 공감대 형성에 의미

다음으로 이번 부산비엔날레에서 가장 강한 임팩트를 준, 일명 ‘네모 3개’의 전시장으로 불리는 Project 2인 ‘F1963’이 있다. 기획의도를 보면,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예술인과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 세계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토론하는 다중지성의 공론장”이라고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관람객 참여형 작품이 눈에 띈다. 이것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통념의 비엔날레를 시민의 예술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는 부산비엔날레의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한국) 작가의 <혼혈하는 지구(Hybridizing Earth)>를 들 수 있다. 즉 구글의 신기술 틸트 브러쉬(Tilt Brush)와 세계 최초로 협업한 작품이다. 관람객은 틸트 브러쉬를 사용하여 가상의 3D 공간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벨리쎬 과르디아 페라구티(이탈리아)의 <Selvage>, 진양핑(중국) 그리고 팍승천(홍콩)의 작품 <A Travel without Visual Experience (#3)>가 있다. 그 외 작품으로는, 조로 파이글의 <POPPY>, 조아나 라이코프스카의 <My father never touched me like that ...>, 최기창의 <Long may you run>을 들 수 있다.



조로 파이글 <Poppy>

먼저 관객들에게 소위 붉은 치마로 알려져 있는 조로 파이글의 <POPPY>를 보면, 이 작품에 붙어 있는 부제인 ‘마약을 상징하며 - 양귀비’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붉은 양탄자가 천장에 매달려서 왕~왕~하며 돌아가는 광경은 마약, 양귀비보다는 어린 시절의 목마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이슬람의 탄누라 춤²⁾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무한히 도는 그 형상 속에서 마약 등 병리적 현상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는 조아나 라이코프스카의 <My father never touched me like that ...>이다. ‘F1963’ 전시장 모퉁이를 돌아서면, 상단에 화면으로 아버지와 딸이 나타나 그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얼굴을 쓰다듬고 있다. 절묘한 균형과 단순한 동작으로 이어지는 조아나 라이코프스카의 작품은 홀로코스트, 즉 나치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등에서

2) 탄누라 춤은 무아지경 속에서 세속의 짐과 욕망을 점차 털어버린다는 의미로 계속 돌며 그 과정에서 물질적 욕구에 가득 찬 몸은 무거워 천상에 있는 신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슬람의 신비주의관을 볼 수 있다.

죽은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다고 한다. 애정 그 이전의 미안함과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행된 인간의 폭력, 그곳에서 살았던 한 인간에게 갖는 애상과 그것을 보는 연민이 이 작품에 있다. 그래서 눈물겹다. 다음으로 아쉬울 뻔했던, 최기창의 작품 <Long may you run>이다. 같이 관람한 친구의 추천이 없었다면 지나쳤을 작품이다. 그 담담한 표현과 수식과 과장을 없애 버린 작가의 의도가 오랜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벽에 남겨진 시간의 역사 혹은 폭력, 즉 낙서의 자유스러움과 그 자유 너머에 있는 아픔의 이중적 메타포가 나만 가슴 저미게 하는 작품은 아닐 것이다.

작가와 작품,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

이번 2016부산비엔날레에서 가장 큰 특징은 ‘F1963’과 패키지 상품이다. 비어있던 폐공장을 예술 공간화 하였으며 나아가 카페공간마저 예술작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앞으로 그 활용도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2016부산비엔날레 - KTX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첫째가 펀드구축의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후원업체에서 약속한 것과는 달리 적은 금액을 후원하여 전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쯤이면 광주비엔날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유로운 예산을 가질 수가 있을까? 다음으로 부산(부산영화제), 경남(창원조각비엔날레) 넓게는 광주비엔날레까지 하나의 비엔날레 투어 코스로 묶는 방법은 없을까? 나아가 이렇게 좋은 전시를 더 대중 가까이서 볼 수는 없을까? 홈페이지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미디어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2016부산비엔날레에는 작가와 작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태풍 치바 때문에 걱정되어 전시장에 남아 바람에 날아간(?) 지붕을 수선하는 사무국



1. 윤필남 <손에서 손 끝으로>
2. 최기창 <Long may you run>

사람들! 전시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와 도슨트 그리고 우리 자신, 부산시민들! 이 모두가 부산비엔날레의 소중한 자산이며 순간이 아닌 영원으로 나아가는 부산비엔날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독립출판을 바라봄, 바라봄

글 | 강은경 독립출판 브랜드&디자인 스튜디오 'Small Batch Books' 운영
사진제공 | 부산독립출판연구소(BSPL)

지난 여름 부산에서 최초로 독립출판물 박람회 '2016 부산아트북페어'가 열렸다. 4일에 걸쳐 전국에서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직접 만든 작업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관객과 만나는 판매마켓과 더불어 '다 팔리고 없는 무한정판의 세계', '창작하는 유령들'과 같은 주제로 한 기획자와 창작자의 토크, 또 '책과 바다사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시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그 예상을 웃도는 사람들이 방문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한다. 나는 이 행사를 그 누구보다 기다렸고, 내 작업들을 선보이기도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4일간 행사장에 갈 수는 없었다. 현장의 생생함은 전달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다만 부산에서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서울사람으로서 어쩌다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함께 떠나려하게 되었는지, 부산에서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지켜보며 느꼈던 생각들을 더듬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 2016 부산아트북페어 (FROM THE MAKERS)
- 전시 - 책과 바다 사이
2016. 7. 7(목) - 7. 10(일), 아트소향 내 소전시실
 - 마켓 - 프롬더메이커즈
2016. 7. 9(토) - 7. 10(일), 아트소향 전관

독립출판을 주제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책 시장으로, 전국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창작자(제작자/작가)가 직접 판매, 홍보하며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 책을 매개로 함께 즐기는 축제이다.

2016 부산아트북페어 (FROM THE MAKERS)

오롯이 내 목소리를 내는 백퍼센트의 내책

그렇다.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떠나려왔다. 독립출판이라는 장르가 태동할 때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주류의 출판사 편집자와 함께 내 생애 첫 에세이를 내기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당시 독립출판물은 이게 책이냐는 반문이 일반적이었던, 대체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랜덤하고 산발적인 창작자들의 인쇄물의 총합이었던 듯하다. 책이라고 아무도 인식해주지 않는 어떤 얇은 인쇄물 혹은 그도 아닌 물체의 애매한 경계에 걸쳐져 있던 그 모든 인쇄물들 말이다. 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출판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교보문고에서 검색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등단한 작가들, 검증된 전문가 집단들이 책을 내는 것이니 책을 내고 저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도 역시 다른 카스트의 이야기였다. 나는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내 이야기를 연재형식으로 잡지에 실을 기회를 얻었고, 그 잡지의 글이 다른 출판사 편집자의 눈에 띄어 단행본 출간을 제의 받았다. 로또 같은 것이었다. 만드는 내내 저자가 되어 내 책에 사인을 해주는 상상을 하면 글쓰기의 산고는 참을 만했고, 실

제로 책을 냈던 경험 자체는 굉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책을 만들면서 의견은 낼 수 있어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황망함과 실망, 인세를 먹고사는 일은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출판계 수익구조의 현실 등을 체험한 과정이기도 했다. 고작 책 한 권을 내 본 것으로 내가 출판계를 논할 수는 없지만, 고작 책 한 권으로도 나는 내 목소리를 오롯이 낼 수 있는 백 퍼센트의 내 책을 내가 만들자는 결심 같은 걸 하게 되었다.

주류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과 형식의 출판물

독립출판은 말 그대로 주류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과 형식의 출판물이다. 나는 보통 독립출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예로, 대형출판사에서 내주지 않을 것 같은 종류의 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대형출판사는 팔리는 책을 낸다. 단순하고 명쾌하다. 사람들이 사서 볼 만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 기획에 맞는 내용을 만들어 줄 창작자를 섭외해서 글과 그림을 넣고 디자이너가 책을 만들면, 마케팅·홍보를 열심히 하고 전국의 유통배급망을 통해 온오프라인 서점 매대에 올

린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몇 퍼센트의 역할을 맡을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책을 만들 수 있을까? 내용이 너무 적거나 너무 방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보편적이거나 너무 개인적이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둡거나 그 반대이거나, 만들고 싶은 책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모양이거나, 콘셉트가 너무 트렌디하거나 혹은 너무 고루하거나…….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로 인해 당신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을 담은 책의 출판을 거절당할 수 있다. 허다하다.

결국 내 이야기를 나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런 면에서 독립출판물은 태생적으로 어떤 이야기라도 그 모양 그대로를 거의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매체일지 모른다. 이야기하는 사람(저자)의 의도는 글이나 사진, 그림뿐만 아니라 책의 만들어진 방법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도 전달된다. 상업성보다 작가주의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다. 매대에 꽂힐 수 있는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크거나 작게 만들 수 있고, 덜렁덜렁 종이 한 장으로 된 것도 의도에 따라서는 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책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책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책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 안에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의도한대로 들어가 있다면 그 자체로 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독립출판물에서의 책의 정의는 이렇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고, 마치 예술이 그러한 것처럼, 독립출판물은 저자가 책이라는 범위 안에서 가장 자신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틀이다. 그리고 저자의 지위는 스스로 획득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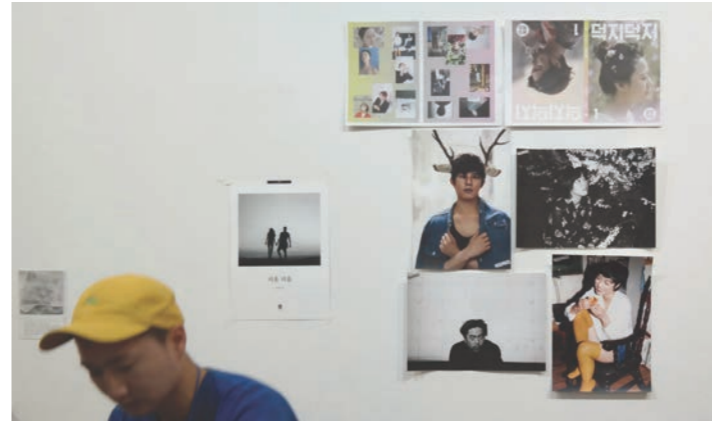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 시장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점이 독립출판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식과 세분화로 건강한 시장 형성

출판사를 통해서 만드는 책에 대한 아쉬움과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이나 창작의 표현과 소통 매체로서 책을 만들어온 몇몇은 독립출판물의 흐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책을 만들어왔을 것인데, 그렇게 비 오기 전 구름 속 수증기 같던 이러저러한 인쇄물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비로소 피부에 닿아 “어, 비가 오네.” 라고 살갓으로 느끼게 해줬던 것이 홍대의 작은 서점 유어마인드에서 8년 전 시작한 독립출판물 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이었다. 이제는 광화문 일민미술관을 빌려도 미어터지게 방문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당해낼 수 없는 국내최대의 독립출판물페어가 된 그 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예나 지금이나 매 시즌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에도 불구하고 독서율은 기아상태, 사회 안에서 늘 소수자였던 독서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을 이유는 없어 보



인다. 대형서점과 출판사는 트렌드셀러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지 오래고, 저자들은 강연을 해야 책을 팔아먹고 살 수 있고, 동네서점들은 학습지 교재를 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된 상황도 새로운 것은 없다. 과연 무엇이 이 흐름을 만들어냈나.

대개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경로가 지극히 좁았다가 다른 우회로가 생긴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경우가 그렇다. 지긋지긋한 청년실업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매년 창작자들은 사회로 떠밀리듯 나오고 인정하든 아니든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창작자들은 강제로 주어지는 잉여의 시간들에 밀쳐야 본전이니 자아실현이라도 해보자며 성역 없는 이 바닥에 발을 디딘다. 운이 좋으면 작업이 잘 팔리기도 하고 돈이 되는 큰 출판사와 계약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내 작업세계를 지키면서도 일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얻거나 그도 아니면 다른 작업자들의 작업을 보며 자극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잃을 것이 없다.

무엇이든 (거의) 가능한 표현, 가능한 매체이면서

동시에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지는 느리고 불편한 소통방식은, 어디서나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는 소셜네트워크상의 흐르는 소통보다 매력이 있다. 나는 독립출판물의 영역이 그 어딘가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부산에서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수업이나 워크숍을 할 때 부산 그리고 창원, 울산, 대구 등 다양한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 한 번도 비슷한 이야기가 없고 모든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어질 만한 가치의 이야기들이다.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읽으면서 부산을, 부산사람들을 알아가기도 한다. 더 많은 부산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만들고 싶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에서는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많으면 좋겠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에서 열려야 하듯이, 지역의 이야기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먼저 읽히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의 북페어가 열린 것은 매우 환영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작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어서 이 시장을 뛰게 만들면 좋겠다.

창작자에서 서점으로 이동한 독립출판 2.0의 시대

더 많은 사람들이 독자에서 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이 어떤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독립출판물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라도 저자로서 그 목소리를 내도 괜찮은 만만한 장이 깔렸기 때문이다. 책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시장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시장의 크기가 커

지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책의 가치와 결을 고르는 와중에 더 다양한 방식의 건강한 시장이 세분화되며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과 소비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시장이 생겨나듯이,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이 늘어나면서 독립출판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서울은 매달 새로운 독립출판서점들이 생기고 있어서 매달 서점들의 현황을 새로 업데이트해야 할 지경이다. 물론 1세대 독립출판서점 중 몇몇은 2~3년을 고비로 문을 닫거나 위치를 옮기거나 온라인서점으로 옮겨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성장세가 꺾이기는커녕 그들의 사례를 발판삼아 지속가능성을 고민한 다양한 콘셉트들의 서점이 새로 생겨나고, 작은 서점들이 모여 이 흐름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지금은 독립출판의 중심이 창작자에서 서점으로 이동한 독립출판 2.0의 시대로 보인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현대미술에서 큐레이터가 한 축을 형성하듯, 서점의 역할이 결국 이 시장을 존재하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독립출판물들은 상품이면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고 만져지는 연결지점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점의 주인들은 작업을 소개하고 구매자와 연결해주는 큐레이터, 서점은 갤러리의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독립출판물 서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전문성과 고유의 성격을 가지

게 될 거다. 서점 주인들은 그들 자체 혹은 그들의 선택(큐레이션) 자체가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더욱더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작가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잠재적 고객들이자 팬들과 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그 서점에 찾아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국 그 서점에서만 가능한 경험에 시간과 돈을 기꺼이 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작은 서점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독립출판서점들은 책을 파는 기본기능 이외에 대규모 서점들이 하기 힘든 다양하고 실험적인 행사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서점의 입장에서는 독립출판물서점의 취약한 수익구조 때문에 여러 방편의 마케팅·홍보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매개로 한 대안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가깝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 서점 주인으로서 자생하는 방식에 고군분투중이다.

독립출판물시장의 자생력에 대한 생산적 논의

부산에도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 독립출판서점들이 있다. 그 곳에서 부산작가들의 작업을 만나면 고향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갑다. 부산의 어느 동네를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그린 만화를 읽으면 나는 낯선 곳에서 친구를 만든 것 같을 것이다. 에어비앤비가 여행은 그 곳에서 살아보는 거라던데, 나는 책

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잠깐 살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사람으로서 나는 더욱 이 서점들에서 부산의 이야기를 찾고 읽고 싶다. 샵메이커즈, 책방숲, 업스테어, 산복도로책살롱 그리고 그 외의 내가 모르는 부산의 독립출판서점들을 방문해보시라.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도 보내주시라. 당신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책과 독서경험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니 내가 이토록 낙관주의자였던가 싶다. 물론, 독립출판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찬란함의 한 편에서는 우려와 자조의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 독립출판물시장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형성된다든지, 인기와 권력구조가 보인다든지, 실험은 끝났고 한계에 봉착했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독립출판은 거품이었고 이제 사라질 것인가? 창작자들은 계속 이 시장을 믿고 자기작업을 해나가야 할까. 독립출판서점들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이런 모든 담론과 현

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단계를 보여준다는 점 때문이다. 초기에는 시장을 만들고 스스로 커지는 것을 감당하는데 벅찼던 창작자들 그리고 유통 배급업자들, 서점 주인들이 이제 이 상황을 관찰하고 서로 모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이 시장이 살아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연장해가고 있다는 믿음과 안도감을 준다. 부디, 독립출판계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나는 그가 커서 무엇이 되던 원이 없겠다.



문화가 있는 날

두 가지 변수와 두 개의 가능성

글 | 정상도 국제신문 논설위원



분수령 맞은 '문화가 있는 날'

2014년 1월 29일 오후 2시 부산역. 갑오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 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한 깜짝 공연이 펼쳐졌다. 국악공연팀 '부산예술단'의 모듬북과 판굿 공연, 비보이 퍼포먼스팀 '킬라몽키즈'의 현란한 몸짓, 퓨전 관현악그룹인 'YWCA 브라스밴드'의 선율이 설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오후 3시부터는 부산역 2층 '맞이방'에서 부산시립예술단의 화려한 공연이 이

어졌다. '문화가 있는 날' 첫 행사는 이렇게 무르익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융성시대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시, 영화, 스포츠, 공연 관람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의 하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문화정책으로 꼽힌다.



부산에선 이후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및 야간 개장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그런 성과가 지난해 광역시·도 가운데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시설 참여율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가 있는 날'은 여전히 2%, 아니 그 이상 부족하다. 이를 안다는 시민이 두 명 중 한 명꼴이고,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시민은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게다가 '문화가 있는 날'은 두 가지 큰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하나라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이 추가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나머지 하나다. 이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실적위주의 관 주도 가능성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양날의 칼일 수 있다. 그 결과는 시민이 얼마나 제대로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기느냐에 달렸다.

통계로 보는 '문화가 있는 날'의 민낯

'문화가 있는 날'은 갈 길은 멀다. 이는 홍보 부족이나 콘텐츠 부족 등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문화가 있는

날'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문화가 "이제부터 즐기세요." 해서 융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정이 이러니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참여도는 아직 높은 점수를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15세 이상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7.6%가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 때보다 12.4%포인트 늘었으나 국민의 절반이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다가 '문화가 있는 날'을 아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38.1%에 그쳤다. 프로그램 불참여 이유 평일이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57.4%),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15.8%),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적어서(12.1%) 등이 꼽혔다.

2014년 1월 '문화가 있는 날'이 처음 시작될 당시 883개였던 프로그램 수는 올해 6월 현재 2,200여 개로 3배가량 늘었다. 참여 시설도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1,000개를 훌쩍 넘겼다. 그래도 국민이 볼 때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투성이다.

부산은 더 상황이 열악하다. 부산시의 올해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은 7200만 원, 16개 구군으로 나누면 1곳당 450만 원을 쓸 수 있다. 참여 시설은 부산시 문화시설 187곳 가운데 39%인 73곳.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공연장을 끌어들이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직장배달콘서트, 동구와 영도구, 강서구의 작은 음악회, 금정구 지역거점 특화공연 등이 이뤄졌으니 문화 향유를 갈구하는 시민의 바람을 새삼 느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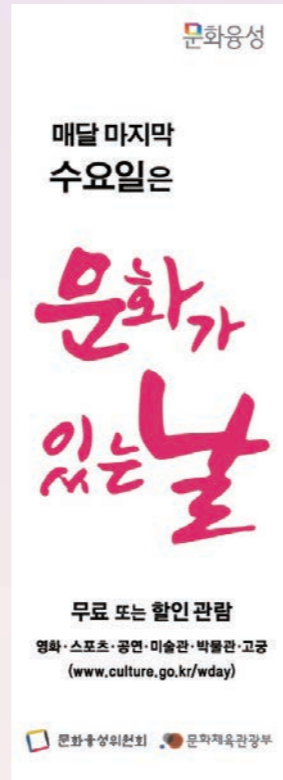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이의 탄생에서부터 비롯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의 가치를 내걸고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초대 위원장이 김동호 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다. 우리 문화 현상이 얼마나 황폐했으면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 하는 상황인식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수공했고, 김 위원장을 믿었던 측면이 있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사업이 필요하며 문화 향유가 개인의 권리임을 자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은 기존 문화행정과 겹칠 수밖에 없다. 이를 주도하는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어정쩡한 동거가 불가피했다. 예산이 중복되거나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문화가 있는 날'은 부족한 예산 지원에다 기존 행사를 몰아서 하는 식의 추진으로 많은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당연히 '문화가 있는 날'은 새로운 문화 생태계 조성의 계기여야 한다는 바람을 충족시키기엔 미흡한 성적표에 머물고 있다. 연극, 뮤지컬, 미술관, 음악회를 못 가는 소외계층을 보듬어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고, 차별화한 콘텐츠로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예술계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그 예다.

'문화가 있는 날' 변신의 기회는 있다

프랑스는 1984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말 '문화유산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엘리제궁, 상원 의사당, 총리공관 등 공공시설과 전국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해 프랑스 문화의 위상을 자랑한다.

이처럼 문화의 힘은 국력과 직결된다. 성장 논리에 매몰돼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시대로 도약할 때가 됐다. 문화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 그런 면에서 '문화가 있는 날'도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만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듯 천천히 가야 한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통한 '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가 그 예다.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문화가 있는 날'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에도 문체부가 권고하는 정도에 그쳤다. 문화융성위원회가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틀날인 5월 20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14개 광역시·도 문화재단과 맺은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융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다.

'문화가 있는 날'의 또 다른 변수는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포함시킨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공공문화시설의 행사 참여율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인센티브 지급 등 방식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문화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이 불가피하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영화의전당 등을 비롯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부산지역 평가 대상에 포함된 36곳의 공공문화시설에 비상이 걸린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이 두 가지 변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점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민간 차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의 가능성은 기업과 젊은 층의 참여 유도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민간기업의 문화예술후원활동(메세나)을 '문화가 있는 날'과 결합하는 일이다.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발맞추면서 전략적 문화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창의적인 콘텐츠로 무장한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은 기업의 홍보에도 순기능을 한다. 기업의 정체성과 '문화가 있는 날'의 양상불은 해당 기업에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생활 속 문화 참여'의 기회를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젊은 문화예술인에게 '명석을 깔아주는 일'이다. 그들이 전국의 공연장은 물론 전통 시장과 공원 등지에서 열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클래식이나 전통예술, 대중문화 등 장르를 가리지 말고 학력이나 경력보다 실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무대에 설 젊은이를 뽑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진다면 그게 바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이자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일이다.



영도(影島)를 소재로 한 두 편의 부산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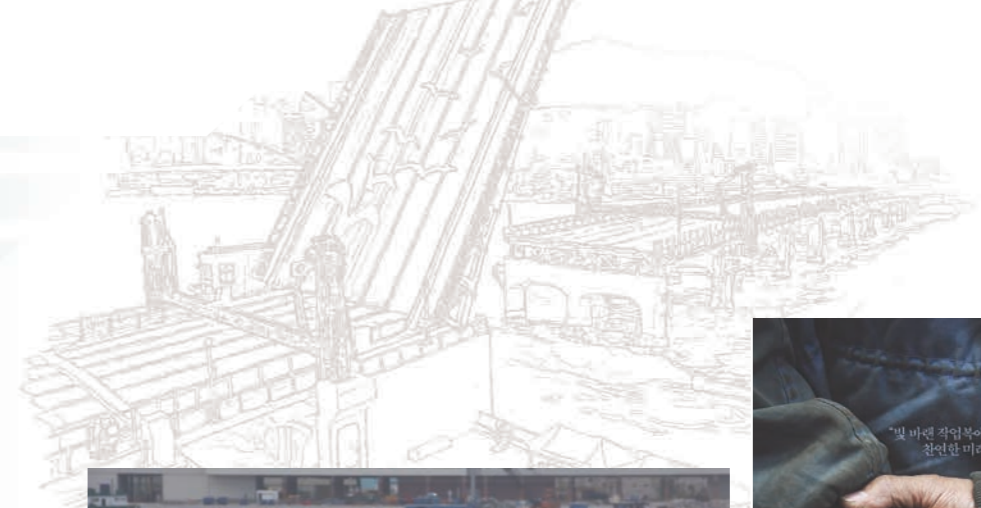
글 | 김이석 동덕여대 영화학과 교수, 현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부회장



영도(影島). 한자로 '그림자 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그 기록이 멀게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라 하니, 영도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았던 땅인 셈이다.¹⁾ 1934년 영도대교가 개통되면서 영도는 육지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면서 영도다리는 애환의 장소가 되었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영도는 여전히 섬과 같은 존재다. 부산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환경은 낙후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시대의 흐름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다.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도심과는 다른 풍경 덕분에 영도는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속에 자주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이 영화들 속에서 영도는 늘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이 공간과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등장했다.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과 김영조 감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그 작품들이다.

1) 영도구청 홈페이지 http://www.yeongdo.go.kr/05about/03_03.asp



노동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다 : 〈그림자들의 섬〉

김정근에게 영도는 한진중공업의 땅이다. 따라서 그의 영화를 특징짓는 이미지는 크레인과 배 그리고 노동자들이다. 김정근은 김진숙, 85호 크레인, 희망버스 등의 단어들로 기억되는 2012년 한진중공업 사태 이후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무려 309일 동안 크레인 위에서 홀로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씨를 비롯하여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들이 참여했던 노조활동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재만 놓고 보면 격렬한 시위 현장의 모습 등이 중심이 된 영화일 것 같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림자들의 섬〉의 대부분은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숙씨를 포함한 다섯 명의 노조원들은 입사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한진중공업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한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울먹이며 그들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기쁨, 기대와는 사뭇 달랐던 작업 환경 때문에 느꼈던 실망감, 노조를 만드는 과정의 두려움, 동료에 대한 섭섭함과 고마움 등을 회상한다.

영화 전체를 인터뷰로 구성한 것은 매우 대담한 발상이었다. 사실 이런 구성은 관객입장에서는 불친절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영화의 흥행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감독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처럼 단조로운 형식을 선택한 것일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김정근이 이미 2012년에 한진중공업 사태를 다룬 르포르타주 형식의 영화 〈버스를 타라〉를 연출한 바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원했다면 그는 언제든지 시위 현장의 모습 같은 스펙터클한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정근은 스펙터클한 영상들 대신 인터뷰를 선택했다. 그 이유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정·재계 인사들의 강연이나 인터뷰를 자주 듣죠. 그에 반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²⁾

〈그림자들의 섬〉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작품의 배경이 된 영도에서 따온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영도를 대표하는 회사였으며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영도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김정근 감독이 만난 사람들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림자로 취급받아왔다. ‘그림자들의 섬’이라는 제목에는 이런 부당한 대접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감정이 담겨 있다. 이제는 언론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정근 감독 자신도 노동자 출신이다.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인쇄소와 신발 공장 등을 떠돌면서 감독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아나갔다. 영화로 삶의 진로를 변경한 이후에도 그는 다음 영화를 만들기 위해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진숙씨는 “1987년 이전의 노예 생활로 지금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스스로를 문화노동자라고 규정하는 김정근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조에게 영도는 서민들의 땅이다. 따라서 김영조의 영화를 특징짓는 이미지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도시재개발 등 굵직굵직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케 살아남은 평범한 영도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김영조의 영화 속에서 영도는 여전히 섬으로 존재한다. 바지선과 대형 크레인이 즐비한 영도는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질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풍경은 다리 건너 도심의 풍경과는 사뭇 이질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영도의 사람들 역시 도심 속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감독의 작업노트에는 영도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불꽃을 튀기며 거대한 선박을 수리하는 용접공의 두터운 작업복 속에서 풍겨 나오는 퀴퀴한 땀 냄새, 뿌리 뽑힌 삶 속에서도 한 가닥 위안을 찾고 싶었던 피난민을 달래주던 점바치들의 중얼거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해녀의 자맥질……. 비록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강인한 삶의 흔적은 영도의 골목과 해변 그리고 선창에 남아있다.”

2013년, 47년 만에 영도다리가 재개통되면서 소외되었던 땅 영도는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 보였다. 도개(道開)시간에 맞춰 몰려 들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동네를 새롭게 단장하는 계획도 세워졌다. 영도 사람들도 기대에 부풀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점바치 할머니가 영도대교의 성공적인 재개통을 기원하는 제(祭)를 지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점바치 골목을 마지막까지 지키던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일터와 삶의 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다. 늙은 강아지를 벗 삼아 살아가던 할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건너 와 물질을 가족을 건사해왔던 해녀의 일터에도 증장비들이 들어왔다. 언젠가 자신이 만든 배 위에서 색소폰을 멋지게 불어보리라 꿈꾸었던 용접공은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미화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 영화의 제목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장밋빛 약속들이 가슴을 부풀게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의미가 그 하나라면, 현실은 그저 예전처럼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마저도 쉽게 허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다른 하나다. 김영조 감독의 전작들을 감안할 때, 아마도 두 번째 해석이 감독의 의도에 더 가까울 것이다.

다른 듯 닮은 두 편의 영화

영도라는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김정근과 김영조의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은 다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김정근의 카메라는 영도의 경계 너머로 확장되어 나간다. 반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물들의 개인사를 조망하는 김영조의 카메라는 영도의 내부로 더 깊이 파고든다. 영화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공간과 인간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서로 닮았다. 무엇보다 이 두 편의 영화는 솔직하고 겸허하다. 두 감독 모두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카메라 앞에 있는 공간, 사건, 인물들이 스스로 말하게 만든다. 경박한 유아론적 태도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으로 채워진 다큐멘터리들이 범람하는 요즘, 이처럼 진솔한 두 편의 영화가 부산 감독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다행스럽고 자랑스럽다.

〈그림자들의 섬〉 : 2014년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2016년 8월 25일 개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 언급’, 2016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및 관객상 (2017년 개봉 예정)

2) <http://news.maxmovie.com/256275>

부산문화재단은 지금

종아서 하는 동아리, 일상에 예술을 입히다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6월부터 사하구 생활문화연합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남구, 금정구,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영도구 등 총 8개의 지역별 생활문화연합회를 구성하였다. 7월부터는 국악분야 생활문화연합회를 시작으로 무용, 밴드, 연극, 기악, 합창분야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작년까지 개별동아리 지원형태로만 진행했던 사업을 올해는 지역별, 장르별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하구 생활문화예술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부산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생활문화예술제가 열리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예술제를 통해 생활문화동아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단에서는 부산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더 많은 동아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문의 : 문화사업팀 051-745-7252



원로미술가의 작품을 통해 만나는 시대의 발자취
〈부산 원로미술가 특별 초대전〉

2016년 9월 27일(화) ~ 10월 2일(일), 부산시청 1, 2, 3 전시실

부산문화재단은「부산 원로예술인 창작지원 - 님의 예술혼, 상생으로 통하다」사업으로 〈부산 원로예술가 특별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전시는 김봉진(서양화가), 오재수(문인화가), 정운재(서예가) 등 지역의 명망 있는 원로 작가 36명의 작품 108점을 통해 부산미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였다. 2017년에는 문학분야 지원을 통해 원로예술인의 창작의욕과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문의 : 예술진흥팀 051-745-7233



추억이 새록새록 감만예술운동회
2016 감만아트페스티벌 - 감만예술운동회 개최
2016년 10월 1일(토), 감만창의문화촌

올해 세 번째로 열린 〈2016 감만아트페스티벌〉은 감만동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와 지역 주민들,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회로 200명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나도 작가, 나도 행위 예술가, 공 굴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육군 제2보급단, 감만사회복지관에서 참여하였으며, 이 밖에도 감만동 주민들이 옛 운동회의 추억을 전지로 풀어내는 감만만감, 리사이클링 아트 전시, 감만예술시장과 지역주민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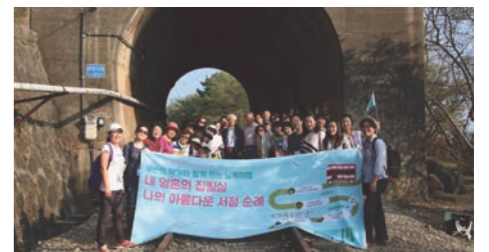
• 문의 : 창작공간팀 051-745-7247



낭만의 가을, 온 삶 속에 책을 담다
2016 독서문화축제 〈온 삶 속에 책〉 개최
2016년 10월 15일(토)~16일(일), 부산교육대학교 일원

‘온 삶 속에 책’을 주제로 열렸던 2016년 독서문화축제는 책을 매개로 하여, 부산지역 독서 관련 단체 및 작가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토리강연, 시민참여공모 전시, 도서증정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으며, ‘책 속에서 만나는 부산이야기’, 부산작가와 함께하는 낭독여행 등의 사전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부산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책읽기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독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문의 : 문화교육팀 051-745-7288



2017년도 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입주예술가 공모 안내

- 창작공간 : 감만창의문화촌, 흥티아트센터
- 접수기간 : 2016. 10. 19.(수) ~ 11. 18. (금) 16:00 까지

감만창의문화촌

- 장르 : 시각, 공연, 문학, 다원예술 등
- 입주기간 : 2017. 1. ~ 12.(1년간)
- 선정규모 : 14팀 내외
- 지원내용 : 창작공간 및 창작 프로그램 지원
- 문의 : 창작공간팀 감만창의문화촌 051-745-7248



흥티아트센터

- 장르 : 시각(설치미술 중심, 프로젝트)
- 입주기간 : 2017. 1. ~ 12.(단기3월~5월/ 장기 1년간)
- 선정규모 : 10팀 내외
- 지원내용 : 창작공간 및 창작 프로그램 지원,
해외 교류전 참여
- 문의 : 창작공간팀 흥티아트센터 051-263-8662



2017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부산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가 11월 마지막 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방법, 신청 자격, 신청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1:1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니 예술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예술진흥팀 051-745-7231~4

